



明慧週刊



麥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55期(2025.11.24) WWW.MINGHUI.ORG

한글판 1021호 minghui.or.kr



▲ 명혜망 제22회 중국 법회가 11월 9일 개막했으며, 이달 하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주요내용

- 【중국법회】 천목이 열린 상태에서 바르게 걸어가려면 법을 잘 배우는 것이 근본
- 【중국법회】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하게 진상을 알리다
- 【중국법회】 신기한 순간, 어릴 때부터 습관 된 원망심이 제거되다
- 【중국법회】 이기심을 버리고 타인을 위하다
- 【중국법회】 한 가지 올바른이 백 가지 악을 제압할 수 있다

〈목차〉

■ 중국법회

천목이 열린 상태에서 바르게 걸어가려면 법을 잘 배우는 것이 근본 …	3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하게 진상을 알리다 ……………	14
신기한 순간, 어릴 때부터 습관 된 원망심이 제거되다 ……………	25
이기심을 버리고 타인을 위하다 ……………	35
한 가지 올바름이 백 가지 악을 제압할 수 있다 ……………	45
사부님께서 원한의 빛을 풀어주시다 ……………	56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대법은 반드시 수련할 것이다 ……………	68
진상 알리기를 첫째로 놓자 놀랄 일은 있었으나 위험은 없었다 ……	76

【편집자 주】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목이 열린 상태에서 바르게 걸어가려면 법을 잘 배우는 것이 근본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존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련한 지 30년 된 젊은 대법제자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저는 닫힌 상태로 수련을 해왔는데, 최근 2년 동안 사부님께서 저의 천목(天目)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법 암기를 통해 천목이 막 열렸을 때의 미숙함에서 점차 어떻게 수련해야 하는지를 깨달은 과정을 글로 써서 수련생들과 교류하려 합니다.

천목이 막 열렸을 때 저는 약간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보는 것인가? 아니면 상상하는 것인가?’ 나중에 저는 ‘그럼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내 머릿속에 그림이 계속 나타나는가를 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 여전히 화면이 나타나 저는 그제야 정말 천목이 열렸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불확실한 상태에서 확신하게 된 후, 저는 천목이 열린 저의 이 상태를 친척 수련생과 가까이 지내는 수련생들에게 말하고 “이 일은 다른 수련생들에게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수련생들은 모두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천목이 막 열린 초기에는 제가 이 세상에 내려오기 전에 겪었던 일들, 친척 수련생의 어느 한 생, 주변 다른 수련생의 어느 한 생, 그리고 악을 제거할 때 어떤 사악한 경찰 두목의 뒤에서 그들을 통제

하는 사악한 생명체의 상황, 그리고 단체 발정념할 때 다른 수련생들이 어떻게 신통을 사용하는지, 우리가 함께 손잡고 악을 제거하는 상황 등을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다들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어서 처음에는 저의 상황을 알고 있는 작은 범위 수련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실제로 수련생들의 수련 과정에 어느 정도 격려하는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이야기하고 나니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말하고 나면 마음이 편치 않았고, 본 상황을 사소한 것까지 모두 말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특히 친척 수련생은 제가 천목이 열린 것을 안 후부터 저에게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디에 무슨 상황이 생겼다며 저에게 발정념을 해달라고 하고, 내일은 어떤 수련생의 몸에 비정상적인 심각한 상태가 나타났다면 저에게 발정념을 해달라고 하면서 제가 본 내용을 자신에게 말해주면 병업 고비를 넘고 있는 수련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척 수련생에게 “이렇게 저에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법제자는 모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발정념을 해야지, 저에게만 발정념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지금의 이런 상태가 자신이 자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말해서 수련생들이 모두 저에게 의존하게 된 것이니, 나중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또 어떤 수련생이 제가 말하지 않는 것을 알아채고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씨가 본 것은 수련생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해야 합니다. 수련생이 ○○씨에게 의존하는 것은 그 수련생이 잘 수련하지 못한 것이고, 그가

제고해야 할 부분이지, ○○씨가 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하면 안 된다면, 사부님께서 왜 ○○씨의 천목을 열어주셨겠어요?”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과연 말해야 하는가? 말하지 말아야 하는가?’ 또 한편으로는, 때때로 제가 본 내용에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혹시 수심이화(隨心而化)가 아닐까? 내가 수심이화로 본 가상을 수련생들에게 말한다면, 교란 작용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방황하고 무력한 가운데 한때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저의 천목을 달아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본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방금 본 장면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잘못된 것이 없는지 계속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당시 너무 힘들었고 아무도 저를 도와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나중에 저는 ‘차라리 법을 외우자. 아무도 나를 도와 분석해 줄 수 없을 때 사부님의 법을 기억할 수 있다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실수를 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법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법을 외우는 과정에서 저는 자신에게 숨겨져 있던 아주 좋지 않은 마음들을 찾았습니다. 저는 ‘천목으로 본 내용을 과연 말해도 되는가’에 대한 걱정하는 과정에서 매우 심각한 사심(私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층차가 떨어질까 봐, 제가 잘못 말할까 봐, 사부님께 제자의 천목을 달아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등 매우 심각한 사심이었습니다. 심지어 병업 고비가 매우 심한 수련생의 질문에 직면했을 때조차,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수련생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이번에 수련생이 이렇게 심각한데 말해도 괜찮겠지? 층차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천목이 열린 후에는 층차가 떨어질

까 봐 지나치게 조심하는 상태로 수련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나중에 이 사심을 깨달았지만 이어서 다시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나에게 과시심은 없겠지? 남들에게 본 내용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 나에게 과시심은 없을 거야. 과시심이 있는 사람은 나처럼 지나치게 조심하는 상태는 아닐 거야.’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많은 오랜 수련생들을 만났는데, 그중 한 노년 수련생도 천목이 열렸지만 때로는 보이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날 수련생들은 사악한 요소가 많은 곳으로 가서 근거리 발정념을 했습니다. 돌아온 후, 그 노년 수련생은 방금 발정념 할 때 천목으로 본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아주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내심 그분을 얹잡아보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분도 오랜 대법제자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수련하고서도 천목이 열린 일에 대해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흥분해서 말하며, 언어 속에는 강한 과시심이 있구나.’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반성했습니다. ‘남을 얹잡아보는 것은 질투심의 표현이다. 수련생은 거울이기에 그 수련생의 모습을 보게 된 나에게는 전혀 과시심이 없을까? 만약 없다면 사부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겪게 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나에게는 없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천목으로 본 내용을 이야기할 때 항상 매우 평온한 상태였고, 동시에 수련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할까 봐 말하고 싶지 않았으며, 천목이 열린 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지 않는 등, 줄곧 묵묵히 수련하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저는 사부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 수련생의 과시심을 저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이는 분명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증거이지만 저 자신이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한번은 불법 감금된 수련생을 위해 발정념을 할 때 구세력의 한

신(神)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자네가 도와주려는 이 수련생의 수련의 길은 이미 오래전에 안배되어 있다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일에 직면할지, 모두 이미 정해진 대본이 있다네. 나도 천명에 따라 행동하는 것뿐이네.” 그가 손을 휘두르자 두루마리 같은 것이 펼쳐지는 것이 보였는데 그 위에 쓰인 글자를 명확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천명에 따라 행동합니까? 당신이 말하는 안배는 모두 구우주(舊宇宙)의 고층 생명들이 자신을 구하기 위한 안배이며, 모두 사심에서 나온 안배이지 저의 사부님의 안배가 아닙니다. 대법제자는 오직 사부님의 관할에만 속하며 당신들의 모든 안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의 두루마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없어서는 안 돼. 큰일 날 거야.” 저는 그를 무시하고 그마저도 함께 없애버렸습니다.

그러자 더 높은 층차의 구세력 생명체가 와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그 두루마리를 없앴다고 해서, 모든 이의 두루마리를 없앨 수 있겠는가? 게다가 설령 없앴다 해도 두루마리의 기제(機制)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네. 이보게, 이건 자네에게 안배한 것이야, 봐봐.” 그는 말하면서 두루마리를 제 앞에서 펼쳤습니다. 두루마리 위에는 뿌연 셀로판지 같은 것이 덮여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보려고 하면 이 셀로판지가 걷히면서 안의 내용이 보였습니다. 저는 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개변 후의 당신의 이 길은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다른 사람이 본 후에 당신의 어느 일보에 난이 있음을 당신에게 다 말해 준다면 당신은 또 어떻게 수련하겠는가? 그러므로 전혀 보지 못하게 한다. 다른 법문의 누구도 보지 못하게 하고, 동문(同門) 중의 제자도 모두 보지 못하게 하기에 누구도 맞게 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일생은 개변된 것이며 수련의 일생이기 때문이다.” (전법륜)

그는 제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위 상황을 수련생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중 한 수련생이 “법공부를 정말 착실히 하셨네요. 저 같았으면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을 떠올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보았을 것입니다.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천목이 열린 상태에서 수련하는 것이 참 어렵고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여러 번 사악을 직접 대면해 물리치는 경험을 했는데, 그때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법이 순식간에 제 머릿속에 떠올라 문제가 단숨에 해결됐습니다. 다른 수련생들의 칭찬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느낌이 없었고, ‘법공부를 착실히 하는 것은 진수제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닌가? 당신이 해내지 못한 것은 당신이 착실하게 수련하지 않았고, 법공부에 마음을 쓰지 않기 때문이지. 당신도 법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당시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

다. 또 한번은 병업 고비를 넘고 있는 수련생을 위해 발정념을 할 때, 제가 천목으로 본 내용과 사부님의 법을 결합해 수련생과 교류했습니다. 그날 수련생이 많았고 발정념 후 그 장(場)이 매우 좋아서 교류 중에 그 수련생은 정념이 올라왔고 자신의 집착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저는 수련생이 앞으로 점차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다른 수련생으로부터 그 수련생이 다시 나빠졌고 정념도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수련생도 오랜 대법제자인데 어떻게 고비를 헤쳐나갈 의지력이 없을까’라는 원망이 생겼고, 무죄가 강철로 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사람 마음이 생겨 수련생과 교류하려는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전법륜』을 외우다가 “누구보다도 나운데, 나는 일반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구절을 보고서야 문득 경각심이 일어났습

니다. ‘나는 천목이 열린 다른 수련생에게 과시심이 있다고 얹보고, 법공부를 착실히 하지 않은 수련생은 법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병업 고비를 순조롭게 넘기지 못하는 수련생에게 발정념을 해주고 싶지 않아 하는 등, 이 모든 마음이 바로 자신을 수련생 위에 두는 마음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자만심이 아닌가? 나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 수련생이 잘 수련했는지 못 했는지 평가하고 가늠할 수 있단 말인가? 같은 법을 수련하는 수련생은 모두 사부님의 제자이며, 모두 사부님께서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 것인데, 누가 누구보다 얼마나 더 낫단 말인가.’

사부님께서서는 위 세 가지 일을 통해 저에게 숨겨져 있던 깊은 자만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한번은 한 신(神)이 저에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인연을 맺은 사람과 일이 있어 저의 아이로 환생해 법을 얻을 것이며, 저에게 “기억해요, 제 이름은 ○○입니다, 제 이름은 ○○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언제쯤 오실 건가요?”라고 묻자 그는 내년 3, 4월쯤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더 하실 말씀이 있나요?”라고 묻자 그는 “정의 그물에 빠지지 말고 게을리하지 말고 정진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우리 아기 이름을 ○○로 하는 것이 어때요?”라고 말했더니 남편은 “이름을 정말 잘 지었네. 어떻게 생각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지지하는 것을 보고 이 이름은 정말 운명으로 정해진 것 같아 저에게도 약간의 집착이 생겼습니다. 저는 개월 수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3, 4월이면, 10개월을 역산하니 늦어도 6월에는 임신해야 하는데’라고 생각했지만, 6월이 지나도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니, 왜 임신하지 않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강하게 집착하지는 않았지만 이 일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일부 사람은 자신의 의식상에서 늘 외래정보의 교란을 받으며 외래정보가 그에게 무엇을 알려주면 그는 바로 무엇을 믿는데,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전법륜)

저는 그제야 ‘그의 표현은 신이지만 수련자에게는 모두 외래정보이고 그의 교란을 받은 것이 아닌가?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가 울지 안 울지, 언제 세상에 내려올지는 모두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것이며 집착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가 말한 대로 행동해서도 안 되며 나는 법을 스승 삼아야 해’라고 깨달았습니다.

『전법륜』을 대조하며 집착을 하나 발견할 때마다 마음이 떨렸습니다. 사부님께서 이 부분에서 매우 엄중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천목이 열린 후 걸어온 이 길을 돌아보니 정말 외줄 타기처럼 아슬아슬했고, 자칫하면 이런 집착들로 인해 법에서 벗어나 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수련생들과 천목으로 본 광경을 교류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한번은 발정념을 할 때 아주 특수한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전에 발정념을 할 때 쓸 수 있었던 신통이나 법기(法器)가 이 공간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었고,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것은 검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검도 그다지 위력이 없었고, 유일한 능력은 고대 무협 소설 속 협객처럼, 칼과 창으로 일일이 찔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체(附體)가 있는 사람은 신공표(申公豹)처럼 머리가 잘려도 다시 자라나는 능력이 있어서, 제가 그의 팔을 잘라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자라났습니다. 그들의 주원신(主元神)은 사악에 의해 새장에 갇혀 있었고, 주원신은 자신의 몸을 주재할 수 없었으며 완전히 사악에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전쟁에서 어떻게 싸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사부님께 ‘이전에 썼던 공을 잠시 쓸 수

있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사악들을 소멸하고 나면 다시 거두어 가셔도 되니, 그렇지 않으면 전혀 죽일 수가 없어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라고 빌기도 했지만 사부님께서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 저는 호법신(護法神)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공격하지 않으면 사악이 우리를 해칠 수 있습니까?” 그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쉬운 일입니다”라고 말하고 사악에 의해 새장에 갇힌 주원신들에게 “여러분은 모두 잘 들으세요. 저를 따라서 함께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라고 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사악한 마귀의 조종에서 벗어나 다시 사람이 되어 정상적으로 윤회 환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한 주원신이 “저는 나가고 싶어요.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 빨리 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정말로 모두 깨어났고 사악은 더 이상 그들을 조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공능은 본디 작은 재간이요 대법만이 근본이로다”(홍음-정법문을 구하다)라는 법리를 문득 깨달았습니다. 무슨 신통법력이든 모두 사부님의 법에서 변화해 온 것입니다. 이전에는 제가 신통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 신통이 있어야만 사악을 소멸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부님께서 이번 발정념을 통해 법이야말로 모든 것의 근본이며, 마음속에 법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부님께서 제가 발정념을 통해 겪었던 일들을 통해 종종 저를 깨우쳐 주셨고, 제자에게 『전법륜』 속의 많은 법리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은 사악한 소굴에서 사악을 제거할 때 한 신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당신을 기다렸어. 당신과 한 판을

겨루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몰라. 오늘 반드시 당신과 승패를 가를 거야. 당신의 신통이 대단한지, 아니면 나의 신통이 대단한지 보자. 자, 당신이 나를 이기면 나는 이 대법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포기할게. 어때?”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저는 사부님께서 『전법륜』에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내외겸수(內外兼修) 공법을 연마(煉)하는 것으로서, 그는 무술도 연마(練)하고 또한 내수(內修)도 하는데, 이런 공법은 도가 중에서 비교적 많이 볼 수 있다. 사람이 일단 이 공법을 배우면 흔히 이런 마(魔)와 마주칠 수 있다. 일반 공법에서는 마주치지 않고 오로지 내외겸수 공법이나 무술을 연마(練)하는 공법에만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어떤 사람이 그를 찾아와 무예를 겨루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에는 수도(修道)하는 사람이 허다한데, 많은 사람이 무술을 연마하고, 내외겸수를 하기 때문이다. 무술을 연마하는 사람, 그 역시 공이 자랄 수 있다. 무엇 때문인가? 그가 기타 마음(心)·명(名)·이(利) 이런 마음을 제거해 버리면 그 역시 공이 자란다. 그러나 그는 쟁투하는 마음을 좀처럼 제거하지 못하며 비교적 늦게 제거한다. 그러므로 그는 이런 일을 하기 쉬운데, 일정한 층차 중에서 또 나타날 수 있다. 그는 가부좌 중에서 흐리멍덩한 가운데 누구누구가 연공(煉功)하고 있음을 알고는, 元神(웬션)이 신체를 떠나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누구의 공부(功夫)가 높은지 겨뤄보려고 하여 이 싸움이 일어난다. 다른 공간에서도 이런 정황이 나타나는바, 어떤 사람이 그를 찾아와 싸우고 때리며, 싸우지 않으면 정말로 그를 죽이려 하여 곧 서로 싸우는데, 오고가며 싸운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승부를 겨뤄 스스로 죄를 짓고자 한다면 저는 당신과 겨루는 것을 포기하고 당신이 저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하지만 부디

더 이상 대법제자를 박해하지 마세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 눈에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서 당신이 더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되돌아설 수 있다면 저는 패배를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대법제자를 박해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미래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악인을 돕는 것이 아닌가요? 어서 빨리 되돌아서세요. 되돌아서서 사부님께 잘못을 비세요.”

제가 이러한 말을 마치자 그의 몸 주변이 은빛 에너지로 둘러싸인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것은 자비의 힘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저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변했군요. 원래의 당신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인간 세상에 이토록 오랫동안 빠져 있었으니 점점 더 나빠졌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점점 더 좋아졌군요. 이번엔 제가 졌습니다. 제가 진 것을 진심으로 인정합니다. 비록 예전에 제가 당신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지만 당신보다 능력이 못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진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다시 한번 저에게 자비는 우주에서 이토록 강대하고 흔들림 없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신통이나 법기도 자비의 힘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법 암기를 통해 종종 법리를 깨닫게 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리를 깨달았기에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전법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때로는 제가 마치 하나의 그릇 같아서, 법을 갈망하며 채워 넣고, 법에 의해 단련되고 정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더 나은 생명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느낌 또한 매우 강렬합니다.

이상은 현 단계에서의 깨달음이며, 수련생 여러분은 법을 스승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적절한 부분은 수련생들은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하게 진상을 알리다

글/ 중국 대법제자 (본인 구술, 수련생 정리)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3살이며 2003년에 정식으로 대법 수련에 들어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중공의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박해가 시작된 뒤였고, 사부님께서 대법제자들에게 진상을 말해 사람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수련생들과 함께 자료를 배포하고 진상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악성 종양으로 구강 수술을 받아 발음이 분명하지 않았지만 저는 대면해서 진상을 알리는 일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해왔고, 그렇게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없었고 집안에서 여자라곤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자라서 결혼했지만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아이를 제대로 키울 형편이 못 돼 제 아이를 낳아 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로서의 온화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성격이 매우 강하고 부드러움이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련에서도 특히 어려운 점이었고 저는 이것이 구세력의 안배일 수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탄은 단 하나입니다. 사부님은 위대하시다! 법은 위대하다! 이렇게 위대하신 사부님이 계시기에 생사를 내려놓고 두려움 없이 오직 중생을 위해 나아가는

대법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사부님이 계시기에 대법제자가 그 험난한 세월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입을 열고 진상을 알리기까지

처음에 저는 진상 자료를 넣은 큰 보따리로 들고 다니며 배포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수련생들이 사람들에게 진상을 잘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나도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련생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저도 진상을 말하고 싶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수련생은 흔쾌히 “좋아요, 나중에 가르쳐줄게요”라고 했고, 그날 오후 바로 또 다른 수련생과 함께 저를 데리고 나가 진상을 알렸습니다. 마트 밖 버스정류장에서 수련생이 사람들과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며 진상을 말하니, 몇 마디 만에 바로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진상 말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꽤 쉽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몇 명을 삼퇴시킨 후 수련생이 말했습니다. “당신들 둘이 여기서 해봐요. 나는 장 좀 보고 올게요.” 그래서 우리는 정류장 주변을 서성이며 ‘이 사람에게 말을 걸까...?’ 하다가 또 용기가 안 나고, 저 사람을 보다가도 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상을 말하는 일은 보기엔 쉬워도 막상 하려면 정말 어렵구나.’ 우리는 꽤 오래 서성이다가 결국 한 사람도 말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부님의 법상 앞에서 사부님께 제게 가지(加持)해주시어 입을 열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나갔습니다. 길에서 한 어르신을 만나 “아저씨, 채소 파세요?” 하고 말을 걸었는데 그분이 “네” 하고 대답하자 그다음 말을 못 이어갔습니다. 말을 못 하니 그분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한 바퀴를 돌았는데 결국 한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너무 못한 자신이 답답해서 스

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도대체 왜 입을 열지 못하니?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도 말해야 할 때 말을 하지 않다니, 이게 뭐 하는 거야!’

세 번째 날, 저는 다시 나가 정류장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제게 말을 걸었고 매우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이 분명하지 않고 턱에 수술 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된 일인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전에는 입 안에 악성 종양이 있었어요. 베이징에서 수술했지만 수술 이후 약도 안 먹고 항암 치료도 안 했는데 나왔어요.” 그분이 어떻게 나왔냐고 묻기에 “과룬따파를 수련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좋지 않은 말을 하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몸에서 직접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과룬궁 진상을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이해했고 삼퇴도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사부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감이 생겼습니다.

그 후 저는 매일 나가 진상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씩 말했지만, 나중에는 길에서 누구를 만나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서 진상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수십 년 동안 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연공하고, 6시에 정념을 발하고, 법공부를 두 강 한 뒤 진상을 알리러 나갔습니다. 집안일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외에는 거의 매일 진상을 말하러 나갔습니다. 아침에 못 나가면 오후라도 반드시 나갔습니다.

공사장에서 진상 알리기, 노동자들이 한 명씩 모두 삼퇴하다

이 수년간 저는 한 노년 수련생과 짝을 이루어 진상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도시와 시골 곳곳을 거의 모두 다녔습니다. 그 노년 수련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하고 다니다 보니 이제 어떤 길도 다닐 수 있고, 어떤 버스도 탈 수 있고, 지하철도 척척 타게 됐어요.”

우리는 늘 큰 봉지에 CD와 《9평 공산당》(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을 담아 들고 다니며 나누고,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년 수련생은 처음에 약간 두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숨죽여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펴고 당당하고 밝게 해야 해요. 우리가 몰래 하면 사람들은 수상하게 생각해서 자료를 받지 않아요.” 제가 당당하게 하는 것을 보자 그분도 두려움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길가에 잠시 차를 세운 운전자들에게 CD와 《9평》을 나누어 주고 한 사람씩 삼퇴를 권하곤 했습니다.

한동안 저와 그 수련생은 늘 공사 현장에 가서 진상을 알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 곳곳에서 아파트와 건물이 많이 지어지고 있었고, 공사 현장마다 노동자가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규모가 큰 현장은 모든 구역을 다 돌아보는 데 몇 달이 넘게 걸리기도 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인원이 많아도 일할 때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한 자리에서 사람을 많이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심시간에 노동자들이 모여 식사하는 곳을 찾아가, 그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밥을 먹는 틈에 다가가 진상을 알렸고 많은 사람을 삼퇴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다른 공사장으로 가서 반복했고 같은 곳에서 너무 자주 이야기해 겹치지 않도록 늘 주의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매우 큰 공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도 많고, 남녀노소 다양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비교적 젊은 청년 한 명을 만나 진상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삼퇴를 하면 재난을 피하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자 그는 이해를 하고는 “좋아요, 저도 삼퇴하겠습니다. 저 예전에 붉은 스카프를 댔어요”라고 시원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명을 지어 삼퇴를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곧이어 그 근처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상을 알렸는데, 대략 몇 명쯤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아까 그 청년이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들, 굳이 일일이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여러 사람의 이름만 적으면 되죠?” 아마도 그 청년은 그 일대의 반장 같은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주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삼퇴하면 평안하고 복을 받습니다!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다들 와서 탈퇴하세요, 줄 서세요!” 잠시 후 사람들은 길게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은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이름을 적고, 다음 사람을 부르고… 그런 식으로 긴 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세어 보니 그날 삼퇴한 사람이 50명 가까웠습니다. 진상을 알고 깨달은 사람도 이렇게 대법제자를 도와 사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새 아파트 단지는 도심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규모가 커 공사 현장도 무척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 단지가 기초 공사부터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그곳에 가서 진상을 알렸습니다. 그곳은 막 개발된 신도시라 버스도 없어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수련생이 우리가 그렇게 매일 가는 모습을 보고 한 번 따라왔는데, 길이 너무 멀어 다시는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차로도 30분 넘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때 함께 다니던 수련생은 이미 일흔이 넘었고 사계절 내내 매일 그렇게 먼 길을 걸었습니다. 발이 헐고 물집이 잡혀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걸었고,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한번은 한겨울에 바람이 몹시 불었는데 그 수련생이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공사장 임시 화장실은 사방이 뚫려 바람이 세차게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그 수련생은 직장에서 차가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고위직이었는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고생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수련생과 함께 큰 길 양옆으로 나뉘어 걷고 지나가는 사람

마다 붙잡아 진상을 알렸습니다. 도랑을 파고 있는 노동자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도랑가에 쭉그리고 앉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큰소리로 알렸습니다. 숲길에도 사람이 보이면 그곳까지 걸어가 알렸습니다.

만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진상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걷고, 매일 말하고, 매일 공사장 곳곳을 다녔습니다. 건물이 완공된 후에야 비로소 그곳에 갈 일이 줄었습니다. 우리는 공사장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진상을 알렸습니다. 지역에 새 건물이 더 이상 들어서지 않자 공사장은 다니지 않게 됐고, 이후에는 공원·정류장 등 다른 곳으로 옮겨 계속 사람을 구했습니다.

어느 날 저 혼자 진상을 알리러 나갔을 때였습니다. 산비탈 아래서 나무 한 그루가 보였는데 그 나무에 노란 열매가 서너 개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열매를 본 적이 없어서 어떤 열매인지도 몰랐습니다. ‘한겨울인데 어떻게 열매가 열릴 수 있지?’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부님께서 저를 격려해주신 것이었습니다.

파출소에서 장 마두(魔頭)를 폭로하자 경찰들 폭소 터뜨려

한번은 제가 인터넷 봉쇄돌파 프로그램 CD를 배포하다가 사복경찰에게 주게 됐는데 그가 경찰차를 불러 저를 파출소로 납치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물어도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파룬궁 진상을 알리며 중공을 따라 좋은 사람을 박해하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자 저를 위협했습니다. 저도 두렵지 않았고 마음속으로 ‘사악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우리집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집에는 사부님 법상과 프린터, 진상 자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사부님께 청했습니다. ‘저를 나가게 해주세요, 저는 아직 사람을 구해야 하고 제 사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경찰은 저를 어찌지 못하겠는지 저녁에 저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의 환희심이 사악에게 빈틈을 보이게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봉쇄돌파 프로그램 CD는 저만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이 사람의 마음이란 정말 해롭습니다.

또 한번은 ‘장쩌민 고소’ 때문에 경찰이 저를 파출소로 오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겁내지 말라고 당부하고 스스로 당당하게 파출소로 갔습니다. 파출소에 들어가자 경찰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국가 지도자를 고소했습니까?” 저는 듣자마자 ‘진상을 말할 기회다, 이렇게 큰 방에 경찰이 열 명 넘게 있는데 꼭 들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국가 지도자입니까?” 경찰이 “장쩌민”이라고 답하기에 저는 “그는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 매국노입니다”라고 말하고는 장 마두의 추악한 행위를 차례로 이야기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경찰이 듣더니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 후 경찰이 왜 파룬궁을 연공하느냐고 물었고, 저는 제가 어떻게 병에 걸렸고, 어떻게 법을 얻었으며, 어떻게 수련했는지의 과정을 모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병이 나도 치료할 돈이 없었는데 파룬궁을 연공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연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이치에 맞다고 여겼고 또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 가족들도 당신이 연공하는 것을 압니까? 그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은 모두 지지하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또 물었습니다. “파룬궁 연공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요, 파룬궁은 아주 좋습니다. 진선인(眞·善·忍)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대법 진상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진상을 다 말하고 나니 저는 몸이 가벼워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련생을 데리고 진상 알리기

어떤 수련생은 처음에 진상을 알릴 줄 모르고 두려움이 많아서 제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 알렸습니다. 대법제자는 모두 하나의 정체(整體)이고, 저 역시 알릴 줄 모르다가 감히 알리게 됐기 때문에, 수련생이 저에게 데리고 나가 진상을 알리게 해달라고 할 때 저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한번은 제가 진상을 알리는데 마침 상대방도 수련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법공부 팀이 없어서 제가 그녀를 팀에 데려가 법공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진상을 알릴 줄 모르는데 데려가 주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좋아요, 제가 데려갈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정류장에서 만나 함께 진상을 알리러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제가 진상을 알릴 때 그녀는 무서워서 멀리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념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마침 길 한가운데에 포장 상자의 흰색 나일론 끈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다가가 그것을 주워 버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건 버려야 해, 누가 부주의하게 걸려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지.” 이때 한 사람이 제 앞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마땅히 이래야죠. 사람이 걸려 넘어져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우리가 못 봤으면 그만이지만, 봤으면 주워야죠.” 저는 기회가 왔다고 보고 바로 그녀에게 진상을 알렸습니다. 말을 마친 후 수련생이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머리 회전이 정말 빠르네요, 바로 말을 이어 진상을 알리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인연 있는 분 아니겠어요?!”

저는 그녀에게 어떻게 사람에게 말을 거는지, 어떻게 시작하는지, 어떻

게 파룬따파가 좋다고 말하는지, 어떻게 삼퇴를 시키는지 등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말할 때 그녀는 옆에서 들었고 점차 그녀도 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어림잡아 6명의 수련생을 데리고 나와 진상을 알렸고, 그들은 점차 모두 알릴 수 있게 됐으며 지금은 모두 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버리기

저는 타고난 성격이 외향적이고 강단이 있으며 두려움도 적은 편입니다. 강하게 나오는 사람을 만나도 무섭지 않았고, 진상을 말할 때도 항상 당당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며 인내심이 부족하면서도 쟁투심은 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부님께서 많은 마음을 쓰시며 끊임없이 “참아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버스정류장에서 한 노인을 만나 진상을 알려드렸는데,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고 제 모자를 뺏아챈 뒤 ‘퍽’ 하고 바닥에 던졌습니다. 저는 모자를 주워 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며칠 뒤 다시 그 정류장에서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며 돌아다니다가 그 노인을 또 마주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는 저를 알아보고는 큰 소리로 욕을 해대며 듣기조차 힘들 정도의 말로 모욕했습니다. 심지어 제 가방을 잡아 끌며 가지 못하게 하고 저를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수련생이 이 장면을 보고 다가와 진상을 말하며 그를 타이르려 했지만 그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제가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계속 그렇게 하자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그에게 주먹을 두 번 날렸습니다. 그는 멍해

저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분이 가라앉지 않아 “당신 같은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이네요!”라고 말한 뒤 수련생과 함께 돌아섰습니다.

수련생은 크게 놀랐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사람 앞에서 모욕당한 것이 조금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법에 비추어 보니 사부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연공인(煉功人)으로서,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해도 대꾸하지 않으며, 높은 표준으로 자신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전법륜)

저는 상대에게 손을 댄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크게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경계했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참아야 한다.’

쟁투심 외에도 저는 질투심도 발견했습니다. 한번은 수련생과 함께 산기슭에 갔는데 그 수련생이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위에 올라가서 사람이 있는지 볼게요. 있으면 언니를 불러서 같이 올라오라고 할게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아래에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렸지만 그곳은 지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생은 두세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만나서 왜 그러냐고 묻자 수련생은 말했습니다. “위에 올라가 보니 사람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상을 알리느라 언니를 부를 틈이 없었어요.” 그 말을 듣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혼자서 다 말할 수 있어요? 저를 불러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는 한참 동안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 수련생은 참을성이 많아 화도 내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사실 이 수련생은 은퇴 전 경찰이었고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성격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에 비하

면 저는 정말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이렇게 분개한 것은 바로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련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고치자! 반드시 고쳐야 해! 꼭 고쳐야 해!”

몇 해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친정과도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참지 못하고 일이 생기면 바로 화가 치솟았습니다. 한번은 화를 참지 못해 이마에 큰 종기까지 났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잘 수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부님께서 여러 번 저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저는 왜 자꾸 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수련생에게 부탁해 큰 글씨로 적힌 ‘인(忍)’ 자를 여러 장 출력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집 안 곳곳에 붙여 어디를 보든 ‘참아라’는 말을 보게 하며 스스로를 늘 일깨웠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일이 생기면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경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합니다.

위대한 사부님께서 위대한 파룬따파로 우리를 제도해주십니다. 저는 반드시 제 뱃속 깊이 자리한 좋지 않은 요소들을 제거하겠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자비심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부님의 정법이 곧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저는 반드시 자신을 잘 수련하여 수련생들과 함께 더 많은 사람을 구하고, 사부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신기한 순간, 어릴 때부터 습관 된 원망심이 제거되다

글/ 중국 대법제자 쑤롄(素蓮)

[명혜망]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6세인 농촌 여성 대법제자입니다. 1998년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해 지금까지 27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업력으로 가득 차고 쟁투심이 강해 정과 원한의 욕망 속에서 허우적대는 속세의 속인이었지만 이성적이고 도덕적으로 고상한 대법제자로 변했습니다.

이 기간에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서 제자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고 얼마나 많은 죄업을 짊어지시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는지 모릅니다! 제자는 사부님의 자비로운 구원의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세 가지 일을 잘하고 정법시기 대법제자의 칭호를 저버리지 않아야만 사부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제가 세 가지 일을 잘하면서 얻은 깨달음 일부를 써서 사부님께 보고하고 수련생들과 교류하고자 합니다.

1. 법공부를 잘해 원망심을 수련해 없애다

원망심, 증오심, 쟁투심, 질투심, 지적받기 싫어하는 마음 등 이런 나쁜 마음들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뿌리가 깊고 오래됐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고통 속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세 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는 우리 삼남매를 데리고 힘든 나날을 보내며 가난

하고 곤궁한 생활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저희 어머니를 차별하고 트집을 잡으며 사흘이 멀다 하고 싸웠습니다. 때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머니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자주 놀라서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가족에 대한 증오심과 원망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으며 그야말로 서로 평생 왕래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원망심은 저를 오랫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결혼 후 저는 남편과 서로 공경하며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온 가족이 부모는 자비롭고 자식은 효성스러워 이웃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1998년 가을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저는 보서 ‘전법륜(轉法輪)’을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파룬따파를 수련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대법을 수련한 후 저희 가정은 더욱 아름답고 행복하며 평화로워졌습니다.

1999년 7월 20일 중국공산당(중공) 악당이 파룬따파를 미친 듯이 박해하기 시작했고 거짓말이 하늘을 뒤덮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중독시켰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을의 다섯 수련생은 큰 압력하에서도 수련을 포기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법공부 팀을 구성했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가 갖가지 방식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려 파룬따파는 좋다는 것을 실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자주 경찰에게 박해를 받았고 저희 가족도 큰 압력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중공 악당에 대해 두려움이 있어 제가 대법 수련을 고집하는 것을 매우 인정하지 않았고 저에게 자주 화를 냈습니다. 때로는 제가 막 법공부 장소에서 돌아왔거나 수련생들과 협력해 진상 자료를 배포하거나 법을 실증하는 일을 하고 돌아오면, 그는 저에게 크게 화를 내고 심지어 욕설을 퍼붓기도 했으며 한 번은 때리기도 했습니다.

법공부를 깊이 하지 못했기에 저는 당시 깨닫지 못했고 그가 저를 욕하면 저도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사소한 일로 저희는 심하게 싸웠습니다.

한번은 저희 둘이 시댁까지 가서 싸웠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둘 다 자신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작은 일도 너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느냐?”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이 문득 많이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글을 모르는 분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을까?’ 분명 사부님께서 시어머니의 입을 빌려 저를 일깨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사람 마음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수련인의 기준으로 자신에게 요구하지 못했고, 제고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한 원망심만 더욱 커졌습니다.

매번 남편과 다툰 후 남편은 “내가 당신을 완성시켜주는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쌓인 원한은 제가 깨닫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저는 분개하며 “당신이 날 완성시켜줄 필요 없어. 나에게는 대법이 있고 사부님이 계시니 당신이 신경 쓸 필요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10년 넘게 지속됐습니다.

한번은 법공부를 할 때 저는 사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번거로움과 마주칠 때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다투고 싸우지 말아야 한다. 그가 이렇게 한다고 당신도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바로 속인이 아닌가? 당신은 그와 마찬가지로 다투고 싸우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은 마음속으로 또 그를 미워해서도 안 되며 정말로 그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그를 미워하면 당신은 화를 낸 것이 아닌가? 당신은 참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眞(전) · 善(싼) · 忍(런)을 말하는데, 당신의 선(善)은 더욱 있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와 같아서는 안 되며, 당신은 정말로 그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되는데, 그가 당신을 아래위로 납작하게 만들어 고개를 들 수 없게 했다고만 보지 말라. 당신은 그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은 마음속으로 그에게 또 감사드려야 하는데, 정말 그에게 감사드려야 한다.”(전법륜)

사부님의 법이 저를 일깨워 제가 수련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저는 속인과 똑같이 갈등을 대하면 안 됩니다. 저의 행위를 돌이켜보니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남편에게 고맙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원수처럼 여겨 근본적으로 수련인답지 않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사부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 원망심, 쟁투심, 지적받기 싫어하는 마음, 질투심 등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런 나쁜 마음들을 수련해 없앨 것입니다. 사부님께서 제자에게 가지(加持)를 부탁드립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두껍고 끈적한 물질이 제 몸에서 해체돼 흩어지고 온몸이 매우 가벼워졌으며 머리도 훨씬 맑아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체험하지 못했던 상태로 정말 신묘했습니다. 사부님께서 제가 제고하려는 염원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나쁜 물질을 저에게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저는 관념을 바꾸고 제고됐습니다. 제자는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심전력으로 대법에 동화되기 위해 매주 세 번의 단체 법공부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집에서 스스로 많은 법공부를 했습니다. 2011년에 저는 명혜망에서 수련생들이 법 암기에 대한 교류 글을 보고 저도 ‘전법륜’ 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법을 외우는 과정은 정말로 마음을 수련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어

려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때로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언제 다 외울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갖가지 사상 업력의 교란이 시시때때로 제가 평온하게 법을 외우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게 다졌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계속 외울 것입니다. 1년의 시간을 들여 저는 마침내 ‘전법륜’ 한 번을 다 외웠고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사부님께서도 저를 격려해주셨고 많은 법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주 뚜렷한 꿈을 꿴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보서 ‘전법륜’이 중간에서 펼쳐지며 황금색의 책 페이지를 보여주는 것을 봤습니다. 앞부분은 제 앞에 펼쳐져 있었고 뒷부분은 계단 모양을 보여주며 하나의 계단, 하나의 계단이 끝없이 광활한 우주 대궁 깊은 곳까지 뻗어 있었는데 황금색 계단은 정말 비할 데 없이 장엄하고 신성했습니다!

깨어난 후 저는 꿈속의 장엄한 광경에 감동받았고 이것이 자비로우신 사부님께서 저의 법 암기를 격려해 주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법 암기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저는 법 외우는 속도가 매우 느려서 올해까지 14년 동안 법을 외웠지만 14번밖에 외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 암기를 매우 좋아하며 계속 외워나갈 것입니다.

2024년 9월 저는 또다시 보서 ‘전법륜’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심성도 법 암기, 법 필사 중에서 모르는 사이에 제고됐습니다. 일을 만났을 때 법으로 헤아릴 수 있었고 사람의 마음이 나오면 바로 잡아서 해체하고, 버리고, 수련해 없애며 제때에 저의 사상과 행위를 바르게 했습니다. 매 순간이 수련이라고 느끼고 법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많은 법공부, 법 암기, 법 필사는 저의 언행을 바르게 했습니다.

저의 심성이 높아지고 업력이 소멸되자 저의 주변 환경도 변했습니다. 남편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집안일, 설거지, 요리, 빨래 등을 도와주고 매일 아침 거의 그가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발정 넘 시간이 되면 그는 저에게 “시간 됐어”라고 일깨워줬습니다. 제가 하던 일을 그가 대신 해줬습니다.

남편은 직접적으로 제가 법을 실증하는 일을 돕지는 않았지만, 집안일 대부분을 도맡아 제가 대법 항목을 할 시간을 갖게 해줬습니다. 남편은 제가 수련하는 전 과정에 함께하면서 제가 수련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난을 조성해 제가 많은 업의 빛을 갚도록 해줬으니 이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2. 진상 알리고 사람 구하는 중에서 용맹정진

저는 처음에는 수련생들과 협력해 대규모로 진상 자료를 배포하는 일부터 시작해 나중에는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 진상을 알리고 삼퇴(三退,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권유했으며 또 대면으로 진상을 알렸습니다. 수련생들과 협력하는 중에서 저희는 정말로 서로 돕고 구원했으며 많은 세인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많은 집착을 수련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모두는 많이 성숙해졌고 안정됐으며 대법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 정말로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래에서 제가 진상을 알리고 사람 구하는 중에서 겪은 작은 이야기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구원의 신성함, 사존의 격려

어느 해 하루 저는 나이든 수련생 부부와 두 살배기 작은 손자를 데리고 큰 장터로 가서 세인들에게 대면으로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유했습니다. 수련생 할아버지가 스쿠터를 운전해 저희를 장터에 내려주고 저는 내려서 인연이 있는 사람을 찾아 진상을 알렸고 수련생 부부는 저의 손자를 돌봐줬습니다.

장터로 가는 사거리에는 두 명의 여성이 서 있었는데 저는 그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두 분 언니 안녕하세요! 장 보러 가세요?” 그녀들은 “네, 별일 없어서 장터에 구경 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두 분은 삼퇴로 평안을 보존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들은 “들어본 적 없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중공이 중국인들에게 저지른 죄악, 하늘이 중공을 멸할 것이며 삼퇴해야만 평안을 보존할 수 있다는 진상 등을 알려주고 파룬따파가 무엇인지 등의 대법 진상도 알려줬습니다. 그녀들은 진상을 분명히 들은 후 모두 삼퇴했고 진상 자료를 받았으며 그리고 나서 기쁘게 장을 보러 갔습니다.

장 보러 온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저는 한 사람씩 진상을 알려 탈퇴시켜야 하는데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없으니 빠뜨리면 어쩌나 생각했습니다. 함께 온 수련생 언니가 제 곁에서 “제가 이름을 적을게요. 당신은 진상만 알리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앞을 보니 수련생 할아버지가 저의 작은 손자를 안고 사람들 밖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아무런 걱정 없이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파룬따파의 아름다움, 중공 악당의 사악함, 하늘이 중공을 멸할 것이니 삼퇴해야만 평안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듣기 좋아했고 모두 흔쾌히 삼퇴를 했으며 진상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제가 진상을 다 알린 후 사람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한 60여 세의 남성은 진상을 듣고 삼퇴를 한 후 제가 건넨 진상 DVD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는 DVD를 잘 챙겨 넣고 두 손으로 합장하며 저에게 연신 고개를 숙여 절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남성의 행동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감사할 필

요는 없습니다. 감사하려면 대법 사부님께 감사하세요! 저의 사부님께서 저에게 당신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건하게 연신 “대법 사부님 감사합니다! 대법 사부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인들이 진상을 깨닫고 구원받은 후 감사하는 표정을 보니 저도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감사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때 사부님께서 저에게 신성하고 장엄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저의 몸집이 매우 크고 높아져 지구를 벗어나 우주의 천지간에 우뚝 솟아 있었는데, 비할 데 없이 신성하고 비할 데 없이 장엄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사부님, 제자는 반드시 사부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을 많이 구원해 중생들이 대법제자에게 거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기한 순간

우리 마을 법공부 팀에는 다섯 수련생이 있는데 대량의 법공부를 통해 서로 토론하고 교류하면서 모두 밖으로 나가 광범위한 민중에게 진상을 분명히 알려 중공 악당이 주입한 독소를 제거하고 대법의 결백함과 사부님의 결백함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법제자의 의무이자 책임이므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2000년 봄부터 저희는 대규모로 진상 자료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두 수련생이 한 조가 돼 한 사람은 스쿠터를 타고 다른 한 사람을 태우고 우리 마을을 축으로 삼아 다른 마을로 퍼져나갔으며, 한 마을도 빠짐없이 진상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저희가 있는 지역의 중간에는 한 개의 강이 두 성(省)을 가르고 있으며 강 위에 있는 큰 다리는 남북을 오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저희는 자료를 배포할 때 보통 진상 스티커도 가져가서 돌아올 때 큰

다리 위에 있는 전봇대 중 위치가 적절한 곳을 봐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파룬따파는 정법이다’ 등 기타 법을 실증하는 스티커를 붙여 더 많은 통행인이 진상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번은 한 수련생이 스쿠터를 운전해 저를 데리고 큰 강 건너 지역으로 자료를 배포하러 갔는데 큰 다리 양쪽에 매우 굵고 높은 전봇대가 있어 위치가 매우 눈에 잘 띄었습니다. 게다가 큰 다리 위에는 밤낮없이 차량이 끊임없이 오가므로 큰 다리 양쪽 끝의 전봇대에 진상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가장 적합했습니다. 저희는 진상 자료를 다 배포하고 돌아오면서 걷는 동시에 적절한 장소를 찾아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마지막 한 장의 진상 스티커가 남았는데 저는 큰 다리 입구의 전봇대에 붙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다리 위를 오가는 차량이 정말 끊임없이 지나가고 있어 어떻게 붙여야 안전할지 저는 걱정됐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재빨리 사부님께 ‘사부님, 제자를 도와주세요. 저는 여기에 진상 스티커를 붙이려고 합니다’라고 부탁했습니다. 전봇대 앞으로 가서 저는 스쿠터에서 내려 전봇대 쪽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무심결에 저는 고개를 돌려 큰 다리를 봤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차량이 끊임없이 오가던 큰 다리 위에 차량 한 대도,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신속하게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제가 스쿠터에 올라타는 그 순간, 다리 위의 차량들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듯이 여전히 끊임없이 질주했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연신 “사부님 감사합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부님께서 시시각각 제자 곁에서 제자를 보호해주셨습니다.

수련생들을 위해 진상 자료를 제작하다

2018년에 우리 지역 수련생들이 사람을 구하는 데 사용하는 진상 자료는 모두 책임자가 먼 곳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매우 불편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저는 자료를 만들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엡손 805 프린터가 한 대 있었는데 속도가 느려서 주로 진상 지폐를 만들었고 자료는 거의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임자에게 “제가 자료를 만들게요. 저는 빠른 프린터가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책임자는 제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뚜렷한 꿈을 꿔했습니다. 저는 실내에서 마당으로 나갔는데 무심결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기이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 사이에 큰 파륜(法輪)이 높이 걸려 있었는데 바로 우리집을 덮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책임자는 저에게 엡손 5210 고속 프린터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이 프린터는 자료 인쇄 속도가 훨씬 빨라 우리 지역 몇 수련생의 사람 구원 수요를 만족시켰고, 때로는 다른 법공부 팀 수련생들도 저에게서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법공부를 첫 번째로 뒀습니다. 너무 바쁠 때는 때때로 추가적인 요구를 거절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법공부, 발정념, 자료 제작으로 바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사부님께서 저에게 자비롭게 안배해주신 것임을 알고 있으며 제가 그 속에서 제고돼 제가 세운 신성한 서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임을 압니다.

제자는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부님께 절을 올립니다!

층차에 한계가 있어 법에 부합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의 자비로운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이기심을 버리고 타인을 위하다

— 대법이 내 마음속 얼음을 녹여주다 —

글/ 중국 허베이성 대법제자

[명혜망] 사부님 안녕하세요!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세 된 여성 대법제자이며, 1999년에 법을 얻었습니다. 아래에는 제가 법을 얻은 후의 몇 가지 체험과 수련 이야기, 그리고 중생을 구하며 얻은 일부 수확을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들과 교류하고자 합니다.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진 증오

199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을 당 서기가 마을 몇몇 사람들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그들이 일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서기가 토지를 불공평하게 나눴다느니 재정에 문제가 있다느니 하며 고발했습니다. 우리집과 서기 집은 외지인이었고 또 이웃이어서 평소에도 관계가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순박하고 겁이 많으며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마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끼어들지 않고, 시비에 가까이 가지도 않으며, 그저 묵묵히 고생을 참고 부지런히 살아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일이라면 더더욱 관여하지 않았고 멀리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핑계를 대며 서기가 우리집에 땅을 더 나눠줬다 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한 명 보내 아버지를 찾게 했습니다. 당시 아버지만 집에 계셨고 아버지는 거듭 설명하시며 땅을 한 톨도 더 받은 적 없다고 말했지만, 그 사람은 막무가내로 더 받았으며 협박했습니다. “땅을 다시 가져가겠다, 증인을 서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점심에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시자 아버지는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 후부터 아버지는 그 고발한 몇 사람만 봐도 겁을 먹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낮에도 커튼을 치고 방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그들이 왔다, 그들이 파출소에 신고해서 나를 잡으러 왔다”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데리고 여기저기 병원을 찾아다녔고, 결국 의사는 과도한 정신적 자극으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음 해 한겨울 어느 날 밤, 아버지는 물에 빠져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저를 깨웠고 저는 통곡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안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쿵쿵쿵’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을 열지 않았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불빛조차 새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노로 눈이 돌다시피 했습니다. 굵고 긴 나무를 들고 울고 소리치고 욕하며 그 집의 문과 창문 유리를 마구 내리쳤습니다. ‘와장창’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제 찢어지는 울음소리가 고요한 밤을 갈라놓았습니다. 그 처절함과 비통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던 아버지를 잃은 저는 마음이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하소연할 곳조차 없었고 마음 깊은 곳에 씻을 수 없는 원한이 자리 잡았습니다. 가슴속 깊이 새겨진 증오심이었습니다.

대법이 내 마음속 열음을 녹여주다

1999년에 저는 대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부님께서 전하시는 것은 불가 최상의 대법이며, 사람이 반본귀진(返本歸眞, 진정한 자신의 본원으로 돌아감)하게 하는 고덕(高德)의 대법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착한 사람이 되며 타인을 선하게 대하게 하는 법임을 알았습니다.

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심성 제고와 업력의 전환에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은혜와 원한은 모두 인연이 있으며, 자신이 생생세세 지은 업이 지금의 갈등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리를 깨닫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부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바꾸자. 이전의 사고방식과 관념을 바꾸고 수련인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자.’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전생·전전생에 그들에게 빚을 졌을 수도 있습니다. 말은 쉬워도 막상 만나면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 다. 기회가 왔다가도 자꾸 지나갔습니 다. 저는 이것이 저의 체면·원망심을 제거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냈습니 다. 그들을 보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그들도 어색해했지만 여러 차례 마주칠 때마다 따뜻하게 인사하자 그들도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제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그 후 다시 마주치면 저는 자연스럽게 “이모부, 큰아버지, 식사하셨어요?”하고 공손히 인사했고 그들도 예의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제 아들이 결혼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저녁에 직접 선물을 들고 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중 몇몇에게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도 권했습니다. 만약 제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배우지 않았다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 있던 그 원한을 평생 풀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선인(眞·善·忍) 위대한 불법이 제 마음속의 얼음을 녹여 주었고 두 집안의 은원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사 어지러움 그 얼마이든가 쌓이고 쌓인 은혜와 원한 수없이 거쳐왔구나 마음은 악하고 업은 커 희망이 없으나 대법은 연원을 모조리 풀어 가누나”[홍음 2-대겁(大劫)을 풀다].

시댁 식구들이 나에 대한 원망을 풀다

오빠는 건설 현장의 공사 책임자였고 남편은 그 밑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병이 나자 남편에게 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허물어질 집을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집이 갑자기 무너졌고, 남편과 다른 한 명의 노동자가 폐허 속에 매몰돼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후 공안국과 파출소에서 조사했을 때 친정 오빠는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제 남편에게 떠넘겼습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야 저에게 말했지만 저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다. 그때 오빠와 올케는 나에게 “네 아들이 결혼할 때 필요한 건 우리가 다 맡아서 해줄게. 다른 사람들의 자식이 가진 건 우리도 똑같이 챙겨줄게. 아이가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돌봐줄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빠가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전가하자 시댁 식구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 도리어 그 죄를 뒤집어써야 한다고? 사고가 났을 때 한 푼도 안 주더니 손자가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도 안 된다! 반드시 각서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네 오빠를 고소하겠다!” 가족 관계에 얽혀 시부모의 뜻에 따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가까운 친척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각서까지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건 이후 시부모와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큰 불만을 품고 멀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시댁과 늘 화목했고 서로 잘 지냈습니다.

저는 수련인의 마음가짐으로 시부모를 대했습니다. 원망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부모가 왜 오빠에게 각서를 요구했는지 이해했습니다. 손자 결혼에 쓸 돈을 확보해주려던 것이고, 그것도 저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흰머리 부모가 검은머리 자식을 잃은 그 마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그리움을 생각하니 더 이해가 됐습니다. 시부모를 만나면 아무리 차갑게 굴어도, 말이 아무리 모질어

도 저는 심성을 지키고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맞서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수련인의 큰 인내로 대했습니다. 제가 인사하면 시어머니는 고개도 들지 않고 “응” 하고만 대답했지만 저는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형님, 언제 오셨어요?”하며 늘 공손히 대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도 아무리 냉정하게 대해도 저는 개의치 않고 선하게 대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제 진심과 선량함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결국 다시 저와 제 아들, 딸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로 돌아왔습니다.

정(情)과 이익을 내려놓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두 달 후 저는 42세의 나이에 가정의 모든 무게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오빠를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밥을 하고 먼지를 치우고 벽돌을 나르고 건축 일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면서 녹초가 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월급을 받으러 갔을 때 오빠가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여자 노동자에게 저보다 하루 5위안을 더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 노동자와 함께 문으로 나가는데 대문 앞에 도착하자 오빠가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절대 말하지 마. 네가 하루에 85위안 받는다는 걸 절대 그녀(나)에게 말하지 마.” 그리고는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공사장에서 사고로 죽었을 때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떠넘겼던 오빠... 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일하는데 이제는 나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자 노동자가 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벌써 10시예요. 집에 가세요. 여기 사람들은 다 사정을 아는걸요.”

저는 눈물을 닦고 집으로 돌아와 문을 살짝 열어 아이들이 제 모습을 보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아들과 딸도 오빠의 행동을 매우 못마땅해했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누워 마음을 가라앉히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수련인이야. 법으로 판단해야 해.’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고 우연한 것은 없으며, 일체는 모두 원인이 있다.”(유법법회 설법)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현세의 친정·시댁 정을 뛰어넘어야 한다. 우주의 이치는 공평하다. 불평하는 마음은 나 스스로가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집착 때문이다. 대법의 기준으로 자신을 측정하고 진선인에 동화해야 한다. 이번 일은 사부님께서 내 심성을 높여 주시고 업력을 전환해 공을 쌓게 하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의 슬픔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샴을 들고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오빠와 올케를 만나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선하게 대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오빠와 올케는 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들과 아무 상관 없는 일처럼 모른 척했습니다. 제가 결혼식 차량을 부탁했을 때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느 날 아침 오빠가 저를 집으로 불러 3500위안을 건넸을 뿐이었습니다. 대법을 배우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을 알게 됐기에 저는 그들의 태도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집안일도 모두 제가 나서서 했습니다. 페인트칠하는 사람을 부르고 두 아이와 함께 가구를 사고 커튼을 달고 이불을 만들고 청소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하며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수련생)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빠와 올케에게 그때 한 약속은 어떻게 된 거냐고 한 번 물어보지 그랬니?” 저는 말했습니다. “엄

마, 저는 안 물어요. 보통 사람처럼 그런 걸 따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수련인이잖아요. 세상에 온 것도 ‘원(怨)’을 갚으러 온 것이고 어떤 불순한 일을 만나도 사람 마음과 관념으로 옳고 그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연공(煉功)함에 높은 표준, 더욱 높은 표준으로 자신에게 요구해야 한다.”(전법륜)

사부님의 법리를 깨달으니 마음이 한없이 밝아졌습니다. 한 점의 원망도 없었고 모든 것이 담담했습니다. 수련생들의 도움으로 저는 소박하지만 진심을 다해 아들의 결혼을 치러냈습니다. 대법은 저에게 이기심을 버리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제 삶은 본질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저는 선량하고 남을 위한 마음을 지니고 자신감 있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법의 위력이자 사부님의 은덕입니다!

수련생과 협력해 중생을 구하다

남편의 사망, 시부모님의 압박, 파출소의 괴롭힘 등 여러 시련을 겪었지만 그 어떤 것도 제가 굳건히 수련을 계속하려는 신심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수련생들의 도움과 교류는 저에게 큰 격려가 됐고 저는 곧바로 단체 법공부에 참여해 심성을 높여 갔습니다. 진상을 밝히고 중생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이며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에 내려오기 전에 사부님과 맺은 서약임을 알게 됐습니다.

수련생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법공부하며 또 밤 시간 일부를 내어 현수막을 걸고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낮에 인연 있는 사람을 만나면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했습니다. 직장에서도 피곤해도 사부님의 대법 속에서 생활하니 모두가 충실하고 보람됐습니다.

겨울철 일거리가 없을 때 저는 한 수련생과 짝이 돼 달력(벽걸이

달력), 진상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A 수련생은 세심하고 일 처리가 신중했습니다. 저는 지붕이 있는 전동 삼륜차를 몰고 수십 권의 달력 (벽걸이와 탁상용)을 싣고 갔습니다. 그녀는 차 안에서 정념을 발하며 삼퇴 명단을 적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달력을 몇 권씩 주면 다 떨어졌을 때 A가 다시 건네주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삼륜차를 타고 골목골목을 다니며 배포하고 진상을 알렸습니다. 농촌 사람들은 대체로 순박하고 선량해 진상을 쉽게 받아들이고 제대로 이해하면 곧바로 삼퇴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커서 삼퇴를 권할 때의 이름들을 A가 차 안에서도 들을 수 있었고 그녀는 차분히 모두 기록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아 안전했습니다. 우리가 배포를 마치고 돌아오면 A는 “나갈 때는 그렇게 어렵더니 일을 하고 나니 너무 가벼워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부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의 물질을 한 층 한 층 제거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0여 명의 삼퇴 명단을 볼 때면 우리는 중생이 구원받은 것에 마음 깊이 기뻐했습니다.

한 번은 달력을 많이 갖고 한 마을 북쪽 입구에 갔습니다. 큰 공장을 짓는 곳에 스무 명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달력을 들고 다가가자 누군가가 “과륜궁 달력이네!”하고 외쳤습니다. 이 사람이 한 권 달라 하고 저 사람도 한 권 달라 하고 금세 모자라서 제가 다시 가지러 갔습니다. 거의 한 사람당 한 권씩 나누었고 몇몇은 그 자리에서 삼퇴했습니다. 말이 서툰 A는 마침 자기 친정 마을 사람을 만나자 그때를 놓치지 않고 진상을 전해 삼퇴까지 시켰습니다. 저는 A를 바라보며 칭찬의 눈빛을 보냈고 우리는 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생구도를 생활 속에 녹여 넣다

진상을 말하고 삼퇴를 권하는 일은 이미 제 생활과 일상 속에 자연

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고물 수거하러 오는 사람, 가스 점검하러 오는 사람, 나무 사러 오는 사람, 옥수수 사러 오는 사람 등 누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을 막 먹고 있는데 고물 수거하러 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안후이 사람으로 짐을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운 날씨에 물 한 잔 마시고 가세요”하고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에 들어오자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아직 치우지 않은 점심이 있으니 빵도 있고 생선도 있으니 조금 드세요.” 그는 손사래를 치며 “아니예요, 됐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대법을 수련하는 사람입니다. 사부님께서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얼마나 힘드세요. 지금은 어느 집에서든 식사 한 끼가 어려운 일은 아니예요.”

제 진심 어린 태도에 그는 마침내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먹으면서 저는 진상을 말하고 ‘선량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도 읽어주었습니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찰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기억하시고 중국공산당(중공) 조직을 탈퇴하세요. 중공이 이렇게 악하니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늘이 그를 멸망시킬 때, 대재앙이 와서 사람을 도태시킬 때 당신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급히 말했습니다. “나 예전에 홍위병이었는데 그것도 해당돼요?” “홍위병도 탈퇴해야 합니다.” “좋아요! 탈퇴하겠습니다!”

마침 밖에서 또 고물 수거하는 사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제 여동생이에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동생까지 집으로 들여 큰 그릇에 라면을 끓이고 달걀 두 개를 넣어 먹게 했습니다. 그녀에게도 진상을 말해 삼퇴시켰고 자료도 들려 보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저는 제가 안 입는 옷, 신발, 큰 스카프를 여동생에게 주었습니다. 남매는 연신 고맙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 깊이 기뻐했습니다.

다른 고물 수거인은 진상을 알고 삼퇴한 후 커다란 호박을 가져다주기도 했습니다. 나무를 사러 온 사람은 진상 듣고 삼퇴한 후 무 몇 개를 내어주었습니다. 옥수수를 사러 온 사람들에게도 한겨울 점심에 반찬 몇 가지를 해주고 술 한 병까지 내어 식사 시간에 삼퇴를 권했습니다. 갈 때는 대련(對聯)도 주고 호신부(護身符)도 주면 모두들 좋아했습니다.

또 어느 날 길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아무리 말해도 삼퇴를 망설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좋은 사람만이 이런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하늘이 저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니 아주머니는 좋은 분이예요. 지금 홍수, 지진, 전쟁, 전염병… 어느 하나 무섭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늘은 악인을 도태시키는 중입니다! 중공에서 탈퇴하면 하늘이 보호해요. 큰 재난이 와도 아주머니와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놓치면 후회해요.”

제 진심이 아주머니를 움직였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탈퇴할게요. 고마워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에게 감사할 필요 없어요. 우리 위대한 사부님께 감사드리세요.”

몇 년간 가사 일을 하면서도 어디를 가든 진상을 말해 인연 있는 사람들이 대법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수련인임을 잊지 않고 수련인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엄격히 요구했습니다. 더럽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반 도우미가 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해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집을 떠나는 날에도 저는 늘 마지막까지 할 일은 모두 해놓고 나왔습니다. 대법의 아름다움을 세상 사람에게 남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떠

날 때면 고객들은 아쉬워하며 전화를 걸어 “아주머니, 언제 다시 우리집에 오실 수 있어요?”하고 묻곤 했습니다.

맺음말

쓰고 싶은 내용은 아직도 너무 많지만 정진하는 수련생들에 비하면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법의 요구와는 더욱 큰 거리가 있습니다. 수련한 지 26년 동안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늘 저를 보살펴주시고 보호해주시며 난관을 만날 때마다 일깨워주시는 것을 정말로 깊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사부님의 위대한 정법 노정에 따라 오늘까지 걸어올 수 있었고 법 속에서 승화될 수 있었습니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지옥에서 건져내어 씻겨 주시고 우주 중의 못 신들이 부러워하는 생명인 대법의 한 입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부님께 절을 올립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한 가지 올바름이 백 가지 악을 제압할 수 있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1998년에 대법을 얻은 여자 대법제자이고 올해 64세입니다. 27년간의 반(反)박해 속에서 모진 역경을 겪었는데 경찰의 소란과 납치, 가택수색을 마주하면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부님이 제 곁에 계시고 제가 수련하는 것은 우주의 대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가장 바른 생명이고 깨끗한 사람, 가장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법을 얻기 전 저는 경찰에 대한 마음의 매듭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경찰에게 포위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남동생이 누군가와 싸웠고 경찰이 그를 잡으러 집에 왔었습니다. 그 이후로 경찰을 보기만 하면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아 매우 두려웠습니다. 법을 얻고부터 저는 당당해졌고 떳떳하게 ‘진선인(眞·善·忍)’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단속하며 두려움을 버렸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니 사부님께서 한 번 또 한 번 제 시련을 없애주셨습니다.

1. 수련생을 돕다

2002년, 저와 같은 단지에 사는 수련생이 있었는데 그는 2년 전 첫 번째로 불법 강제노동을 당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온종일 울었고 노동수용소에 여러 번 찾아갔지만 면회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벌써 2년이 됐는데도 어머니는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 수련생의 상황을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노동수용소에 가서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쫓아오며 소리쳤습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제가 “왕빙청(가명)을 찾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면회 금지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요?”라고 묻자 그는 “전향하지 않아서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전향 안 하면 면회도 안 됩니까? 살인 방화범도 한 번은 만나게 해주는데요.” 그가 즉시 말했습니다. “기다리세요. 제가 전화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잠깐 기다리세요. 곧 대대장과 지도원이 올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대대장과 지도원 두 사람이 함께 왔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고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누구요?”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저는 왕빙청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왕빙청을 왜 2년 동안이나 면회를 안 시켜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별일 아닌데 왜 면회를 안 시켜줍니까? 그 어머니가 칠십이 넘은, 칠팔십 된 노인인데 얼마나 많이 왔는

데도 면회를 안 시켜줍니까? 왕빙청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왜 면회를 안 시켜줍니까?! 어머니가 아들 생각에 병이 다 났습니다.” 대대장이 말했습니다. “오후 2시에 오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대장님.” 제가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가는데 한참 멀어졌을 때 경비원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오후 2시입니다!”

오후에 빙청의 어머니는 드디어 아들을 만났고 수련생은 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장터에서 자료를 배포하고 진상을 알리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 세 명이 수련생의 가방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손을 놓지 않아 머리카락이 다 헝클어진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제 가방을 ‘탁’하고 자전거 바구니에 던졌습니다. 사실 제 몸에는 진상 휴대폰과 CD가 들어있는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달려가 수련생과 함께 경찰 세 명과 맞서 가방을 서로 붙잡고 당겼습니다. 경찰이 “당신 누구야? 누구냐고!”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고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좀도둑이나 깡패나 잡을 것이지, 이 사람들을 상관해서 뭐 합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세 명 모두 손을 놓았습니다. 수련생이 가방을 끌어안자 경찰이 “꺼내봐!”라고 했습니다. 수련생이 ‘9평 공산당’(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 책 한 권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더 꺼내!” 제가 수련생을 밀치며 말했습니다. “빨리 피해요.” 수련생은 뛰어가 버렸고, 경찰도 가버렸으며 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구경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받으면서 온종일 나쁜 일만 하네요.” 물건 파는 사람이 “아주머

니도 얼른 가세요!”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사부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당신이 진정하게 수련하는 사람이라면 우리法輪(파룬)은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다. 나의 뿌리는 모두 우주에 박혀 있으므로 누가 당신을 움직일 수 있다면 곧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면, 그는 곧 이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전법륜)

2. 경찰의 교란을 마주하다

전화를 걸거나 집으로 찾아와 조사하는 것은 경찰이 대법제자를 소란 피우는 주요 방식입니다. 제 가족도 큰 압력을 받았지만 저의 심신에 나타난 거대한 변화를 보고는 저를 매우 지지해 줍니다. 제가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파출소 경찰입니다…”라고 말하기 무섭게 남편은 “이 사기꾼아, 네가 경찰인 걸 어떻게 증명해?”라고 하고는 탁,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한번은 아들 집에 있을 때 아들이 전화를 받으며 “왜요, 무슨 일 있어요?”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경찰인 줄 알고 전화를 넘겨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파출소에 새로 온 사람입니다. 지금 베이징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어서 아주머니가 베이징에 갈까 봐 그럽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회의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청원은 공민의 권리인데 지금 국민 중에 누가 감히 청원하러 갑니까? 정부 청사 입구에서 청원하면 끌려가서 얻어맞는데 지금 국민이 말할 곳이나 있습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이고 합법적인 공민인데 당신들은 왜 자꾸 우리를 찾습니까? 이건 소란입니다.”

“아주머니,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겁니다.” 전화기 너머 경찰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당신들은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고 당신들은 나쁜 사람을 관리해야 합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을 때 박해받은 경험을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가 집으로 저를 만나러 오겠다고 해서 제가 “오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자 아들이 “엄마가 경찰한테 한 수 가르쳐 줬네요”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 경찰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부님께서 그 배후의 사악한 요소를 해체해주신 것입니다.

올해 8월 어느 날, 수련생이 아침 일찍 와서 큰 늑대개 한 마리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으니 조심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나가려고 했는데 스쿠터가 충전되지 않았습니다. 11시쯤 남편이 손자를 데리러 갔고 저는 주방에서 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쿵쿵’하고 급하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어린 손자가 장난치는 줄 알고 문을 열며 “이 꼬마 녀석”이라고 하려는데, 아이구, ‘큰 강도’가 왔습니다! 경찰 세 명이었는데 남자 둘에 여자 하나였고, 한 명은 어깨에 보디캠을 차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새로 이사 온 집이라 아직 경찰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보자마자 웃으며 문 앞에 떡 버티고 섰습니다. 두 발은 마치 뿌리를 내린 듯했고 마음은 침착했습니다. 그들은 모 파출소에서 왔는데 집 안에 좀 들어가 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왜요, 모 파출소에서 저를 왜 찾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그랬으면 됐지 끝도 없습니까? 끝이 없어요? 당신들은 탐오와 부패, 강패와 좀도둑, 바람피우는 것들은 관리 안 하고 놔두면서 우리 같은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이고 법을 지키는 공민입니다. 당신들이 민가에 함부로 침입하는 것은 범법입니다!” 저는 그들이 두 번

째 말을 꺼낼 틈도 주지 않고 속사포처럼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기세가 싹 꺾였습니다.

여경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며칠 전에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들은 국민의 돈을 받으면서 쓸데 없는 짓만 하고 있군요.”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들어가서 좀 볼게요. 보기만 할게요.” 몸 반쪽이 이미 들어와서 우리 집을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들은 위법입니다.”

그때 솥에 있는 밥과 반찬이 다 탔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게 아직도 연공하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연공하든 안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들은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까지 관할합니까?” 그리고는 그들에게 ‘천안문 분신’ 진상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플라스틱 사이다병이 불에 안 탄다고요? 머리카락이 안 탔다고요? 기관지를 절개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요? 다 조작된 겁니다! 진짜 법을 어긴 건 고위층들이지 국민이 무슨 법을 어겼습니까? 아무도 법을 어길 자격이 없습니다.”

그 여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법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맞아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을 먹어도 대꾸하지 않으며, 갈등이 생기면 안으로 찾고 가정이 화목하며, 우리는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술이나 좀 보세요. 다 탔어요.”

그들이 갔고 저는 가스 불을 끄고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진상을 더 많이 알려주고 싶었지만 그들은 이미 내려간 뒤였습니다.

3. 경찰의 납치, 가택수색에 직면하다

박해가 막 시작됐을 때 어느 날 저와 수련생이 단지 안에서 자료를 배포하고 있었는데 수련생이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닐 거예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층에서 입구로 내려오니 경찰들이 새까맣게 깔려 있었고 분위기가 상당히 긴장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에게 알려주는데, 우리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즉시 그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경찰 한 명이 제 앞으로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같이 좀 가시죠. 누군가 아주머니를 신고했습니다. 신고자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랑 파출소에 가서 절차만 밟으면 바로 돌아오게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하자 우리를 억류해 놓고 불법 가택수색을 하러 갔습니다. 남편은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연로한 분이 계시니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규정상 최소 두 명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명이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일 집으로 돌아와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2016년, 수련생이 납치돼 제가 파출소에 가서 석방을 요구했다가 저도 납치되고 가택수색을 당했습니다. 구치소에 30일간 갇혀 있다가

나온 후 파출소에 제 물건을 찾으러 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물건은 다 제가 돈 주고 산 제 물건인데 무슨 근거로 압수했나요?!”

그들이 안 주길래 저는 매일 찾아갔습니다. 파출소에는 매일 싸움 질한 사람, 청원하는 사람 등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앉아 있으면 누군가 먼저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제 이야기를 하고 파룬궁 진상을 말해 주었는데 경찰들도 제가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경찰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물건은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에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국보에 있다고요, 좋습니다. 국보에 가겠습니다.” 제가 발길을 돌리자 경찰이 급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돌아오세요. 내일 다시 오세요.”

다음 날 그들은 압수해 간 물건을 수량대로 저에게 주면서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아주머니, 절대 다른 사람한테 압수한 물건 돌려받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줬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전화해 데리러 오라고 했는데, 아들도 물건을 돌려받을 줄은 생각도 못 했다면 연신 “대단해요! 이건 대법의 위력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1월, 우리는 50km 떨어진 장터에 가서 진상을 알렸는데 며칠 동안 연이어 수련생이 그곳에서 납치됐습니다. 우리 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 운행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부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련생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멈춰서 법공부를 하고 안으로 찾아봐야 해요. 어떤 일도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장터 주변에서 해도 똑같다고 말했지만, 그날 우리 차는 어

느새 장터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자료를 배포하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했는데 그날 탈퇴한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돌아올 때 납치되었습니다. 제가 경찰차에 타지 않으려 버티자 경찰 세 명이 와서 저를 차로 끌고 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경찰들에게 내내 진상을 알렸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하자 소장이 허리에 손을 얹고 험악하게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려 침착하게 그에게 다가가자 제가 미처 다가가기도 전에 그가 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념(正念)을 느꼈습니다. 사악은 바름을 이기지 못합니다(邪不勝正). 제가 그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저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파출소에서 저는 계속 그들에게 진상을 알렸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역대 운동은 모두 조작된 겁니다. 류사오치(劉少奇)가 대반역자라니, 증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어낸 겁니다.” 국보가 거칠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알아?” 제가 말했습니다. “복권됐잖아요.” 아무도 말을 못 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나중에 재수 없는 건 다 당신들입니다. 위에서 시킨다고 그냥 합니까? 파룬궁은 불법(佛法) 수련입니다. 선악에는 보응이 있다는 건 천리(天理)입니다.”

입이 닳도록 말했지만 그들은 저를 15일간 구류하려 했습니다. 신체검사 때 사부님께서 저에게 고혈압 증상을 만들어 주셔서 공안 병원에서 쯔얼 때나 구류소에서 쯔얼 때나 모두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안 들어가겠다고 하자 구류소장이 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발을 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렇게 선선히 나올 줄 몰랐는데, 시간도 늦어 더는 실랑이하고 싶지 않았는지 현(縣)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하자 경찰도 어쩔 수 없이 철수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당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남편이 현지 국보에 가서 제 물건을 달라고 했습니다. 가방 하나였는데 안에는 열쇠와 돈 등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국보를 만나자 말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자문해 봤는데 파룬궁은 사이비교가 아니랍니다.” 국보가 소리쳤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TV에도 다 나왔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건 장쩌민이 한 짓이고요, 변호사 말이 법률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담당자를 만나자 남편은 물건을 달라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대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장이 바로 남편과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물건은 전부 돌려받았습니다.

남편은 인내심이 강하고 정의감이 넘치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공안국 입구에서 온종일 기다렸는데, 아침 일찍 갔다가 밤늦게야 돌아왔습니다.

4. 진상을 알리는 데 자신감이 넘치다

사부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 처리 중의 어투, 선한 마음, 도리(道理)를 더하면 사람의 마음을 개변시킬 수 있다”(정진요지-청성).

어느 날 우리는 6호 장터에 가서 진상을 알렸는데 제 손에는 큰 책자 한 권만 남았고, 그것도 땅에서 주운 거라 좀 더러웠습니다. 몇 사람이 같이 앉아 있다가 제가 다가가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파룬궁은 월급 안 주잖아. 공산당은 월급을 줘. 파룬궁이 월급 주면 내가 믿지.”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일했습니까? 공산당을 위해 평생 일했잖아요. 수십 년 일해서 지금 겨우 3, 4천 위안 주는데, 일 안 해도 줍니까? 파룬궁이 월급을 줘요? 파룬궁은 당신의 생명을 구합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 맞네. 나 한 권 쥐 봐요.” 제가 “이건 좀 더러운데요”라고 하자 그가 “괜찮아요, 더러워도 볼 겁니다”라고 하고는 바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천안문 분신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평안을 지키라는 겁니다. 진상을 아는 것이 구원받을 희망입니다. 공산당이 월급을 준다는데 공산당이 없는 곳은 월급을 훨씬 많이 줍니다.” 옆에 있던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3, 40년을 일해서 요만큼 받는데, 외국은 갠도에 4년만 들어가면 평생 다 못 쓸 돈을 벌니다. 우리는 평생 갠도에 들어가 일해도 겨우 3, 4천 받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그들이 탐오했습니다. 그들이 없다면 우리는 이것보다 더 많이 받을 겁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가버렸고 다른 사람들은 삼퇴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하고 있는데 한 노인이 갑자기 튀어나와 제 자전거 손잡이를 잡고 파출소로 가자고 했습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파출소는 가서 뭐 합니까? 파출소는 나쁜 사람 관리하는 곳이고 우리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도 갑자기 웃더니 자전거 손잡이를 놓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 올바른이 백 가지 악을 제압할 수 있다[一正壓百邪]는 것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저는 매번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할 때마다 웃차림을 단정하게 하고 자신감 있게 합니다. 대법이 저를 만들어 주셨고 저는 대법의 한 입자(粒子)이며 대법 속에서 용련(熔煉)되고 있습니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사부님께서 원한의 빛을 풀어주시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농촌의 여성 대법제자로 올해 62세입니다. 1997년 음력 5월 25일, 저는 매우 운 좋게도 만고에 만나기 어려운 이 고덕대법(高德大法)을 얻었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파룬따파를 수련하면 반본귀진(返本歸真, 진정한 자신의 본원으로 돌아감)하고 정과(正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속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수련해야지. 다시는 사람으로 환생하지 않을 거야. 나는 부처로 성취될 거야.’

사부님의 법은 아무리 봐도 부족했고 갈증 난 사람이 물을 찾듯 보게 됐으며, 한번 보기 시작하면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책 한 권 한 권을 이어서 봤습니다.

기억하건대 제가 청한 첫 번째 책은 《파룬궁(法輪功)》이었는데 그 날 오전에 집으로 가져와 사부님의 공법 그림 설명을 보자마자 앞의 네 가지 공법을 배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우리 마을의 법공부 팀에 갔고 보도원이 다섯 세트 공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저는 또 사부님의 설법 비디오테이프, 공법 가르치는 비디오테이프, 설법 녹음테이프와 연공 녹음테이프를 청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저녁에는 단체 법공부에 참가하고 아침에는 단체 연공에 참가하며 비바람이 불어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수련 후 제 몸의 변화는 매우 컸습니다. 경추 2, 3번 골증식증, 어깨관절염, 저혈압, 심장병, 위장병이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저는 병 하나 없이 가벼웠으며, 피부는 희고 고우며 혈색이 좋아졌고 걸을 땀 바람이 일었습니다. 그런 행복감, 기쁨, 편안함, 안전감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염산물을 잘못 써서 손을 씻었는데 아무 탈이 없다

대략 1998년 어느 날, 우리 수련생 몇 명이 한 수련생 집에 가서 법공부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이 집 남자 수련생의 직업은 선반 몇 대를 조작해 금형류 제품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녹을 제거하고 광택을 내기 위해 염산물을 써야 했습니다. 즉 녹슨 철을 염산물에 넣고 몇 번 돌리면 밝고 광택이 났습니다. 작업상 편의를 위해 그는 마당에 염산물 반 대야를 놓아두었습니다.

그날 제가 방에서 나와 마당에서 손 씻을 물을 찾았는데 벽 가장 자리에 놓인 잡동사니 가운데 물 반 대야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보기엔 수면이 꽤 깨끗해 보였고 대야 밑에는 침전물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걸로 대충 씻자’라고 생각하고 쪼그리고 앉아 평소처럼 손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때 이 집의 이웃 수련생이 방에서 나왔고 저는 일어나서 수건을 찾았습니다. 이웃 수련생이 저를 수건 놓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제 손이 수건에 닿자마자 수건이 곧바로 가루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 수건 보기엔 멀쩡한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두 손은 수건 섬유로 가득 찼고 저는 “이게 어떻게 된 거지?”라고 말하면서 두 손을 서로 비볐습니다. 이웃이 급히 이 집 여주인을 찾으러 갔고 여주인이 제 앞에 왔을 때 저는 이미 두 손을 깨끗이 비벼냈습니다. 저는 급히 “미안해요. 수건을 망가뜨렸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여자 수련생은 긴장해서 “그건 말하지 말고 얼른 수도꼭지 밑으로 가서 손 씻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내밀어 그녀에게 보이며 “뭘 더 씻어요? 손이 다 말랐는데 다시 씻을 필요 없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끌어당겨 수도꼭지 밑에서 다시 한번 씻게 한 후에야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제 두 손은 정말로 깨끗한 물로 씻은 것처럼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좋고 나쁨은 사람의 일념(一念)에서 나오며, 이 일념의 차이가 부동(不同)한 후과(後果)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한다.”(전법륜) 사부님께서 자비로이 제 마음속에 정념을 넣어주셔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이 물 한 대야라고 여겼고, 사부님께서 염산물을 물로 연화(演化)해주셔서 저는 이 큰 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결과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부님께서 위대하시기에 이런 신기한 기적이 파룬파파를 수련하는 제자에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존께서 자비로이 보살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념으로 구세력을 부정하고 교통사고 고비를 넘다

2021년 음력 11월 16일, 저녁 10시가 넘어 저는 법공부 팀에서 법공부를 마치고 스쿠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교차로에 이르렀을 때 저는 이 교차로에서 꺾으려 했는데 뒤에서 차 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지만 차는 보이지 않았고 마음속으로 ‘이 교차로는 가지 말고 앞의 저 교차로로 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제 마음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스쿠터 속도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앞에 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저는 이미 충돌 위험을 피할 수 없었고 급히 핸들을 왼쪽으로 세게 꺾었지만 오른쪽 다리는 여전히 차에 부딪혔습니다. 너무 아파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가슴이 두근거렸으며 스쿠터에 엎드린 채 움직일 수 없었고 한참 동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와 제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저는 괜찮아요. 당신 차를 점검해보세요. 부딪힌 곳은 얼마면 고칠 수 있나요?”라고 말했습니다. 운전자는 “당신만 괜찮으면 돼요. 차는 제가 고칠 방법이 있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는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에요.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시고 어디서나 남을 위해 생각하라고 하세요. 제가 당신 차에 부딪힌 거지 당신이 저를 친 게 아니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불법 주차를 한 것인데 저는 그를 곤란하게 하지 않았고 그도 감히 제 돈을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그의 주머니에 100위안을 집어넣었고 그는 내 스쿠터 핸들을 바로잡아줬습니다.

저는 정념을 발하며 스쿠터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앞에 도착해 스쿠터를 벽에 기대어 세웠는데 오른쪽 다리는 차가운 막대기처럼 말을 듣지 않았고 답답하게 막혀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으며 심장이 ‘쿵쿵’ 뛰었고 허탈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벽을 짚고 왼발로 조금씩 엘리베이터 안으로 옮겼고 겨우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습니다. 마음속으로 정념을 발하며 아이가 제가 다친 것을 알아차리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집 문을 열었지만 5cm 높이의 문턱조차 넘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마침 아들이 침실에서 나와 저를 보더니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 조심하지 못해서 오른쪽 다리를 부딪혔어. 걱정하지 마. 괜찮아”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큰 애를 써서 저를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 아들,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저를 둘러싸고 “상황을 보니 다친 게 가볍지 않으신 것 같네요”라고 말했습니다. 10살 난 손녀가 “할머니 아세요? (사부님) 법신께서 할머니를 막아주신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반드시 저를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만 찍어서 뼈가 부러졌는지 확인할 거예요. 이 종아리 정면 부위는 살이

적어서 충격을 견디지 못해요. 만약 골절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서 맞추지 않으면 잘못 붙고 다시 떼어내야 하는데 그럼 더 큰 고통을 겪게 되세요. 자칫하면 평생 장애가 되실 수 있어요. 병원에 가봐야 기껏해야 맞추고 깁스로 고정하는 것뿐이에요. 주사 맞거나 약 드시게 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드릴게요.”

저는 “나는 괜찮아. 연공한 지 이렇게 오래됐고 내 몸은 다 공(功)이야. 내 공은 모두 영성(靈性)이 있어서 설령 뼈가 부서졌다 해도 다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하면서 솜옷을 벗었고 며느리는 제 신발과 양말을 벗겨줬습니다. 며느리는 두 손으로 제 발을 감싸며 “이 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 얼어서 그래”라고 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고 며느리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두 손으로 제 발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제 종아리는 수직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제 정념이 나오고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사부님께서 며느리의 두 손을 빌려 제 발을 바로잡아주시고 제 두 손을 이용해 허벅지 중간 부위를 잡고 수직 방향으로 위로 당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종아리뼈에서 ‘딱’ 소리가 났고 며느리는 깜짝 놀라 “어머나!”라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아, 괜찮아”라고 했습니다. 사부님께서 우리 둘이 이렇게 신기하게 협력하게 하셔서 뼈를 맞춰주신 것입니다.

저는 “빨리 MP3 플레이어 갖다줘. 너희는 나가. 나는 연공해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런데도 연공하세요? 누워서 쉬세요”라고 했습니다. 수련하지 않는 어머니는 “연공하게 해. 연공하면 빨리 나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반가부좌를 하고 다섯 번째 공법을 연마했습니다. 10분을 연마한 후 손 자세를 주상신통(柱狀神通)으로 막 바꾸자 뜨거운 기류한 줄기가 무릎에서 발가락 끝까지 통과했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종아

리가 순식간에 정상 체온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뜨거운 기류, 세 번째 뜨거운 기류가 무릎에서 따뜻하게 발가락 끝까지 통과했습니다. 사부님의 가지 아래 저는 1시간의 정공(靜功)을 연마했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매 순간 제자를 지켜보시고 제자를 가지해주시며 제자의 모든 것을 균형 잡아주셨습니다.

통증으로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념을 발하다가 잠시 법을 외우고 안으로 찾으면서 많은 집착을 찾아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공부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 형식만 따르는 것, 정법(正法)이 빨리 끝나길 바라는 마음, 인간 세상에 더 오래 있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 고생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깊이 파헤쳐보니 제가 원만(圓滿)을 이루는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그다음에야 중생구도를 놓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를 찾으면 정념을 발해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저는 어렴풋이 잠이 들었는데 오른쪽 다리가 갑자기 세계 떨어졌습니다. 거의 잠들자마자 세계 떨어졌고 동시에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었습니다. 매번 아플 때마다 심장까지 연결돼 아팠습니다. 머릿속에선 온통 ‘아프다’는 반응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에야 저는 이 ‘아픔’을 부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픔’을 겨냥해 정념을 발했습니다. ‘아픔은 삼계(三界) 내의 물질이다. 저는 삼계의 관찰을 받지 않으며 낮은 층의 법리에 속박받지 않는다. 이 아픔이여 소멸되라!’

사부님께서 《2013년 대뉴욕지역법회 설법》에서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현재 소업이든, 사악한 요소가 교란하든, 모두 구세력이 한 것이고, 모두 같은 것이며, 부르는 방법이 다르다. 구세력이 한 일을 나는 모두 부정하고, 나는 모두 승인하지 않으며, 대법 제자가 이런 고통을 감당하게 하는 일은 더욱 마땅히 있어서는 안 된다.”

화장실에 가는 게 저를 곤란하게 했습니다. 이 다리는 서지도 구부리지도 못했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기어가고 싶었지만 몸을 땅에 닿게 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저는 몇 번 시도해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으며 가까스로 바닥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땅을 짚고 뒤로 옮겼는데 마음속으로 가족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집착이 있지만 대법 중에서 바로잡을 수 있고 나는 사부님께서 관리하시니 사부님께서 안내하신 길을 가겠다. 누구도 나를 박해할 자격이 없다.’

그 후로 저는 손으로 의자를 짚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이날 밤 아파서 아침이 되자 말할 힘도 없었고 허탈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고강도로 정념을 발하고 법공부를 하고 연공을 했습니다. 연공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다섯 가지 공법을 모두 연마하는 것을 견지했고 아무리 아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동공(動功)은 벽에 기대어 연마했고 역시 반쪽 몸으로 지탱했는데, 한 번 기지개를 켤 때마다 다리가 뼈 속까지 아팠습니다. 포륜(抱輪)은 앉아서 연마했습니다. 저는 그 바르지 못한 것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걸을 수 없으면 저는 손으로 플라스틱 의자를 짚고 오른발로 설 수 없으면 한쪽 다리로 꺾충꺾충 뛰며 걸었습니다. 천천히 저는 오른발에 살짝 힘을 주고 의자의 지지를 빌려 먼저 오른발 끝으로 땅을 짚고 걸었습니다. 저는 또 점차 발뒤꿈치를 땅에 닿게 했지만 아무리 이를 악물고 견뎌도 이 다리는 힘줄이 한 치 이상 짧은 것처럼 느껴져서 발뒤꿈치를 땅에 닿게 할 수 없었고, 아픔이 상당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태를 인정할 수 없었고 마음속으로 정념을 발해 모든 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정(正)과 사(邪)의 겨루기였습니다.

26일 후 저는 법공부 팀에 갔습니다. 그 집의 20여 계단을 저는 난간을 잡고 걸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해 시어머니는 작은 시아주

버니 집에서 설을 보내셨습니다. 설 첫날 저는 아들,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 시어머니께 새해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작은 시아주버니 집은 3층에 있었고 계단이었는데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습니다(중간에 잠깐씩 멈춤). 그 집 식구들은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작은 시아주버니가 밖에서 돌아와 제 아들과 며느리를 보고 기뻐하며 “너희 둘이 왔구나?”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도 오셨어요”라고 했습니다. 작은 시아주버니는 “믿을 수 없는데”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이야. 안방에 있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급히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올라왔어요?” “제가 직접 걸어서 올라왔어요.” “믿을 수 없는데 걸어보세요.” 저는 일어나 몇 걸음 걸었고 그는 하하 웃으며 “정말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길 거부했기 때문에 저는 때가 되면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모두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휴대폰으로 제 다리 사진을 찍어 정형외과 의사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아마 골절일 것 같습니다. 최소한 금이 간 것 같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정념정행, 노동수용소의 박해를 타파

1999년 장쩌민(江澤氏) 집단은 하늘을 뒤덮듯 파룬따파를 거짓으로 비방하고 모함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베이징으로 가서 공민의 합법적 권리를 행사해 신방국(청원국)에 도착해 청원서를 작성했습니다. 1. 파룬따파 창시자에 대한 수배령 철회를 요구한다. 2. 구금된 모든 대법제자의 석방을 요구한다. 3. 나에게 합법적인 수련 환경을 달라.

제가 신분증을 제출했기 때문에 신방국 인원이 우리 지역 베이징주 재 현지 사무소 직원과 결탁해 불법적으로 저에게 3년 강제노동을 시켰습니다. 노동수용소에서 저는 각종 잔혹한 고문과 약물 파괴를 겪었

습니다. 저는 수련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 법을 외우고 연공하는 것을 견지했습니다. 바오자(包夾, 감시범)는 매일 우리 ‘전향’하지 않는 수련생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특히 급소를 공격했습니다. 고춧가루를 먹었는데 새빨간 고춧가루가 뜨겁게 우리 목구멍을 태웠고 아파서 사람들은 바닥을 구르며 뒹굴었습니다. 바오자들은 또 수건으로 우리 목을 졸랐고 수건으로 입을 막았으며, 독하게 때리고 또 때렸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악행을 지시하는 부대대장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방임하면 사람이 죽을 텐데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그 부대대장은 사람이 죽어도 자기가 책임지겠다며 얼마든지 처리할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또 “마침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당신이 딱 적당하네요”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 저를 산 채로 약물 실험에 이용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이 일 후에 관리과장이 제게 “말을 듣지 않는구나? 며칠만 기다려. 너한테 팍!”이라고 말하며 주사 놓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 후로 제 식사와 물 마시기는 지정된 두 명의 마약중독자가 담당했고 소변은 따로 보관됐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끌려가 정체불명의 약물을 주사 맞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이 병원 내에 막 지어져 아직 사용하지 않는 건물로 부축받아 들어갔습니다. 흰 옷을 입고 흰 모자와 큰 마스크를 쓴 두 사람이 창문 안에서 두 손을 내밀어 제 피를 뽑았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제 반응 능력을 테스트했는데 저를 게임장의 게임기 같은 기계 앞에 앉히고 광구(光球)를 보면 버튼을 한번 누르게 했습니다.

또 한 번은 같은 병원에서 컴퓨터 검사 설비를 통해 클립 하나를 연결해 제 손의 혈자리를 집었습니다. 저는 즉시 강력한 전류 한 줄

기가 뇌를 직접 공격하는 것을 느꼈는데 전동 망치처럼 뇌를 쳤고 한 번씩 점점 더 세졌습니다. 그 느낌은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어떤 약물 실험 효과를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약물 실험을 당한 후 저는 주변신경위축증(암에 상당함)으로 박해당했고 내장 기관과 근육이 모두 위축되었습니다.

노동수용소 안에 한 남자 경찰이 있었는데 실내에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일찍이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세계에서 이런 병에 걸린 두 번째 사례인데 왜 이전에는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당시 저는 박해로 반응이 둔하고 오관이 일그러지고 사지가 변형됐으며 눈은 이미 실명 직전이었고, 대뇌는 기억을 잃었으며 심장 박동이 빠르고 호흡곤란이었으며,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이미 행동 능력이 없어 단지 숨 한 가닥만 남아 있었습니다. 몸은 뼈를 깎고 힘줄을 뽑는 것처럼 아팠고 몸속에서 때때로 황산수가 지나가는 것 같았으며, 또 한 줄기 한 줄기 전류가 지나가는 것 같았고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으며, 머리는 끝로 찢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한 번 아플 때마다 제 얼굴 근육, 눈과 입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고문이 제게 조성한 고통은 매 분 매 초 견디기 힘들었지만 저는 확고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제 심신이 극도의 고통을 받을 때 전신의 기관과 근육이 위축돼 목숨이 경각에 달했을 때도 저는 이것이 병이라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한다거나 죽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노동수용소에서 돌아올 때 수용소는 제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이 끊어질 거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 달리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파룬따파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사부님 설법을

듣고 연공을 계속하며 약 한 알 먹지 않고 주사 한 대 맞지 않았는데도 몸이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전신 기관이 위축돼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던 사람이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온 것은 의학적으로 기적이며, 파룬파파의 신기함과 기적이 다시 한번 제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후 세월 속에서 갑자기 목숨을 앗아가는 고비가 여러 차례 나타났습니다. 단지 두 가지 예만 들면 갑자기 천지가 빙빙 돌았을 때 저는 곧바로 “구세력이 나를 교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정법 구결을 외웠습니다. 구결을 다 외우기도 전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됐고 저는 할 일을 하러 갔습니다. 이 일은 그냥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한번은 제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는데 침대 가장자리에 한 남자가 서서 ‘당신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동시에 제 머리 부분이 아래로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획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입장(立掌)을 하고 정법 구결을 외웠습니다. 구결을 다 외우기도 전에 그 생명은 보이지 않았고 제 몸도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이 일도 지나갔고 저는 누워서 달콤하게 다시 잠들었습니다. 이번 난도 한 차례 바람처럼 지나갔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떻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비로우신 사부님께서 모두 제 난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사부님께서 제자를 위해 산처럼 하늘처럼 큰 죄업(罪業)을 감당해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아직도 세상에 살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직접적인 경험을 써서 밝히는 것은 사부님의 위대함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법이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는 오직 정진실수(精進實修)해 세 가지 일을 잘하고 사은(師恩)에 보답할 뿐입니다!

사부님께서 원한과 빛을 선해(善解)해주시다

2021년 그 교통사고 후 저는 선명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파놓은 구덩이에 앉아 있었는데 농촌에서 사람이 죽어 땅에 묻을 때 파는 구덩이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위를 보았는데 구덩이 주위는 모두 쌓인 흙이었습니다. 50세쯤 된 남자가 저와 마주 앉아 있었는데 그의 두 손에는 각각 비단 그물에 담긴 탁구공보다 조금 작은 둥근 공 한 봉지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봉지는 분홍색이었고 한 봉지는 연한 파란색이었습니다. 그의 의념이 제게 전해졌는데 바로 이것으로 저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원망도 없었고 억울함이나 불만도 없었으며 마음속으로 ‘곧 흙으로 나를 묻으면 죽을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위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올라오세요!” 저는 위로 기어오르는 느낌도 없이 구덩이에서 흙더미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남자가 “사람들에게 물건 좀 사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제 옷 주머니에는 적잖은 양초가 들어 있었고, 저는 제 주머니에서 연한 빨간색 양초를 꺼내 저를 산 채로 묻으려던 대여섯 명에게 주었는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으며 한 사람당 양초 두 개씩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양초는 광명을 상징합니다. 사부님의 홍대한 자비로 제 이런 원한과 빛을 풀어주시고 제자를 구해주셨으며, 제가 일찍이 상처를 입혔던 그 생명들의 원한을 평형시켜주셔서 이 생명들이 저와 선해(善解)하는 것에 동의하게 하셨습니다. 대법이 그들에게도 제게도 광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깊이 명심했습니다. 중생을 소중히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사부님의 무량한 성은(聖恩)에 감사드리며 절을 올립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대법은 반드시 수련할 것이다

글/ 중국 허베이성 대법제자 구술, 수련자 정리

[명혜망]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촌 대법제자이며 올해 59세입니다. 1998년 11월,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기쁘게 얻었고, 수련한 지 8개월 만에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따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을 얻고 수련한 지 8개월은 제 심신에 변화가 가장 컸던 시기이자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수련 전 저는 골증식증과 요통이 있었고, 장기간 항생제를 복용해 위장까지 나빠져 복통이 도지면 구들장에서 뒹굴었습니다. 나중에는 약도 듣지 않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폐인이 다 됐고, 우리집은 마을에서 유명한 빈곤 가구가 됐습니다. 수련 후 저는 온몸에 병이 없어지고 가벼워졌는데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당뇨병, 신경쇠약 등 병도 모두 나았습니다.

당시 우리 고부는 저녁에 법공부 팀에 가서 법공부하고 아침 일찍 연공하기를 고대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날까 봐 알람시계를 몇 개나 샀습니다. 연공장은 3시 30분에 연공을 시작했는데 동공(動功)과 정공(靜功)을 다 했습니다. 6시에 연공을 마치고 집에 와서 밥 짓고 밭일을 해도 피곤한 줄 몰랐고 정력이 넘쳤으며, 우리는 법광(法光) 속에서 목욕했습니다.

1. 저는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실증해야 합니다

1999년 7월 20일, 중공은 파룬따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악은 바름을 이길 수 없다(邪不勝正)’는 것을 알았기에, 파룬

파파가 좋고 파룬따파는 정법(正法)이며 우리 사부님의 결백을 돌려달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집에 있던 300위안을 챙겨 베이징에 가서 정의를 되찾으려 했으나 향(鄉) 정부가 주최한 세뇌반에 납치됐습니다. 남편은 많은 사람 앞에서 제 뺨을 때리고 돈을 빼앗아 갔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고 때려도 연공했습니다.

돈이 없어 베이징에 못 가게 되자 향 정부에 가서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실증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향장과 서기를 직접 찾아가 말했습니다.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우리 사부님의 결백을 돌려주십시오. 대법은 억울합니다.” 그들은 저를 그곳 2층 건물에 불법 감금하고 아래에는 경찰차를 세워 지켰습니다. 구장(區長)도 와서 말했습니다. “파룬공은 X교다.” 제가 말했습니다. “파룬공은 정법입니다. 진선인(眞善忍-진실, 선량, 인내)은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너 비정상이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비정상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사부님을 욕하고 대법을 욕하면 안 됩니다. 저는 법을 실증하러 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가버렸습니다.

시골 아낙이라 세상 물정 모르던 제가 향장, 구장과 이치를 따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확실히 담력이 크다고 여겼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사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無私無畏)’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담(天膽)을 갖고 내려왔기에 하늘이 주신 담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향 정부에 가서 법을 실증할 때는 우리 수련자 4명이 함께 갔는데, 역시 서기를 직접 찾아가 파룬따파가 좋음을 알리고 우리가 수련 후 혜택받은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서기는 “당신들 담력이 너무 크군. 내 관모(벼슬)를 떼어내려는 거냐”라며 우리를 불법 감금했습니다.

박해 초기 2년간 저는 집에 며칠 있지 못했습니다. 향 정부에 불법 감금되거나 구류소에 있었고, 대대(大隊)에서 사설 감옥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향 파출소에서 그들은 저를 작은 의자에 장시간 앉아 있게 하거나 장시간 서 있게 했고,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을 주지 않아 얼게 했고, 여름에는 피약 별에 쪼게 하며 육체를 고문해 신앙을 포기하게 했습니다. 사부님의 가지(加持)가 있어 저는 쓰러지지 않았고 오히려 금강불괴(金剛不壞)의 몸이 되었습니다.

농촌 사람은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편은 막노동하며 매일 20위안을 벌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가 사부님의 경문을 돌려 보다가 중공 악당 요원에게 발각돼 구류소에 불법 감금됐는데, 밥값 450위안을 요구하고 시어머니에게는 1000위안을 내라고 했습니다. 이 1450위안은 모두 남편이 동네 사람들에게 사정해서 빌린 돈이었습니다.

한번은 제가 향 정부에 간혀 있을 때 그들이 우리집에서 제가 손으로 베껴 쓴 《전법륜(轉法輪)》 두 권을 강탈하고 집안을 엉망으로 뒤졌으며 벌금 3천 위안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압력에 못 이겨 정말 돈을 빌리러 가려 했습니다. 저는 향장에게 말했습니다. “3천은 커녕 3전도 없습니다. 그가 만약 빌려서 당신들에게 준다면 저는 반드시 베이징에 가겠습니다.” 그들은 겁이 나서 감히 돈을 달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베이징에 가면 그들의 관모가 정말로 날아가기 때문인데, 이것은 중공의 연좌제 정책이라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저를 불법 감금한 방 철판에는 ‘연공 금지’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고, 그들은 번갈아 가며 저에게 보증서를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쓰면 집에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쓰지 않았습니다. 진장(鎮長)은 “내가 한 진을 관리하는데, 이 몇몇 아낙네를 관리 못 하다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향 정부에 두 달 넘게 불법 감금됐는데 당시 아들은 겨우 대여섯 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저에게 큰 빵을 주러 그 먼 길을 걸어왔는데, 저는 가슴이 아팠고 아이가 걱정됐습니다. 어느 날 싸움을 하다가 들어온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꿈에 한 남자가 머리에 바퀴(法輪)를 하나 얹고 많은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주 좋아 보였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알았습니다. ‘사부님께서 아들을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저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들은 포동포동하고 하얀 게 아주 건강했습니다. 아들은 대법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제가 대법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갓 1학년에 입학한 아들에게 학교 측은 ‘보증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선생님, 저는 쓸 줄 몰라요”라고 했습니다. 담임교사가 대신 써주고 서명하라고 하자 아들은 “선생님, 배가 아파요”라며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대에서 세뇌반을 열었을 때 아들은 대대 칠판에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라고 썼는데 글씨도 크고 아주 잘 썼습니다. 마침 파출소 사람이 와서 제 아들을 두 번 발로 걷어찼는데 정말 산적 같았습니다. 아이는 겁이 나서 집에 오지 못하고 큰어머니 댁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후 베이징에서 무슨 회의가 열리거나 소위 민감한 날이면 사람을 우리집에 보내 괴롭혔습니다. 시간이 언제든 한밤중에도 저를 깨웠습니다. 서기, 진장도 다 우리집에 왔고 어느새 저는 향에서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한번은 향 서기가 저를 향 정부로 불러 물었습니다. “아직도 파룬궁을 연공하나? 시간이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시간 있습니다. 낮에는 두부피를 팔고 밤에는 연공합니다. 당신이 늘 상기시켜 주는데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한동안 조용하다 싶으면 나를 찾으니 잊을 수 없지요. 이 대법은 반드시 수련할 겁니다.”

2012년 베이징에서 무슨 회의가 열린다고 또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또 날 불러서 뭐 합니까? 베이징에서 회의하면 나를 불러야 합니까? 당신은 내가 가길 원합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가고 싶어?” 제가 말했습니다. “돈 빌려주면 갑니다.” 서기는 기가 막혀 말했습니다. “반드시 너를 집어넣겠다.” 제가 말했습니다. “나를 어디로 보낼 겁니까? 이 50kg 남짓한 몸, 오늘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는 나가버렸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우박까지 내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남녀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보증서 하나 쓰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 글자도 못 씁니다. 절대 안 씁니다. 쓰면 나는 베이징에 가고 싶어질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만두시오, 집에 가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가더라도 당신들에게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알려줘야겠습니다.” 여자가 저를 밀며 말했습니다. “언니, 언니가 여기 있으면 내가 지켜야 해요. 난 위장병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외우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럼 외울게요.” 그녀는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외우더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언니 어서 집에 가세요.” 그날은 캄캄했고 비바람에 우박까지 쏟아지는데 저는 비바람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2. ‘인(忍)’은 굴욕을 달게 받는 것이 아니다

저는 악당 요원에게 빈번히 불법 감금과 박해를 당했고, 집에서는 남편에게 수없이 구타와 욕설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부님의 《홍음(洪吟)》을 무척 좋아해서 외우고 싶었지만, 남편이 책을 못 보게 감시해 몰래 외워야 했습니다. 밭일을 할 때 시구를 손과 팔에 적어놓고 일하면서 외워 다 외웠습니다.

사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중공 악당의 거짓말 선전에 중독된 데다 누군가 부추겨서 내 다리를 부러뜨리면 밖으로 나가지 못할 거라며 꼬드겼기 때문입니다. 수련을 포기하게 하려고 그는 저를 때리고 욕했습니다. 밥을 짓는데 뒤에서 갑자기 주먹을 날리고, 화덕 위에서 생선을 굽는데 발로 차서 화덕 위로 넘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욕하면 저는 대꾸하지 못했고 “욕하지 마세요”라고 한마디 하면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제 몸은 늘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뇌반이나 불법 감금된 곳에서도 그는 손을 들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일념을 확고히 했습니다. ‘나를 때려죽여도 이 법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한번은 그가 집 대문과 작은 문을 다 잠그고 1시간 넘게 저를 죽도록 때렸습니다. 저를 때려 굴복시키려 한 것입니다. 매일 맞아서 온몸이 상처투성이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난 아무것도 필요 없고 대법 책만 있으면 돼요. 친정에도 안 가고 구걸하러 다니겠어요.” 저는 대대 책임자를 찾아가 이혼 수속을 밟으려 했으나 그는 집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구들장에 누워 마비돼 있었는데 예전의 제 병과 똑같이 요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참 가여워 보여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대법을 배우세요.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이 대법을 배우고 하나도 안 아프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배울게.” 시어머니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음(忍)은 나약한 것이 아니지만, 온갖 수모를 다 참고 견뎌내는 것은 더욱 아니다. 대법제자의 참음은 고상한 것이다. 이는 생명이 위대하고 견고하여 꺾을 수 없는 금강부동(金剛不動)의 표현이고, 이는 진리를 견지하기 위한 관용(寬容)이며, 이는 아직도 인성(人性)이 있고 아직도 정념(正念)이 있는 생명에 대한 慈悲(츠빼이)와 구원이다. 참음이란 이미 완전히 인성이 없

고 정념(正念)이 없는 그런 사악한 생명의 무절제한 악행에 대한 무제한적인 방임이 절대 아니다.”(정진요지 2-더는 참을 수 없다)

사부님의 법이 저를 일깨워주셨습니다. 예전에 덮어놓고 참기만 한 것은 진정한 선(善)이 아니었습니다. 우주는 정법(正法) 중이며 남편이 대법을 대하는 태도 역시 그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저는 그와 이혼해 그가 사악의 공범이 되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제가 진짜로 하려고 하자 그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안 한다니 그냥 살기로 했습니다. 제가 대법을 수련하니 그 역시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도 큰 압력을 견뎌기에 저는 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가 다시 욕을 하면 저는 어떻게 할지 생각했습니다. 마침 보온병이 보여 물을 한 잔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물 좀 마세요. 한 참 욕했으니 목마르죠.” 그가 “푸하하” 하고 웃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때리고 욕하는 것도 이제 할 만큼 했잖아요.” 그 후로 그는 저를 때리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3. 진상을 알리다

저는 어디를 가든 진상을 알립니다. 한번은 수레를 밀며 신년 진상 달력을 배포하다가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새해 달력 드립니다.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가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받더니 바닥에 ‘탁’ 내동댕이쳤습니다. 당시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진상 자료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요. 저는 얼른 주워 들며 자신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말자고, 중생은 모두 무지 속에 있다고 다독였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가 “그 사람 안 가지면 나 줘요”라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는데 안 가지면 그만이지, 왜 다시 던지나? 받았으면 돌려줘야지.” 그 여자는 “흥” 하고 가버렸습니다. 아주머니가 말했습

니다. “하나 더 줘요. 우리 딸 주게.” 제가 말했습니다. “대법은 가장 바릅니다. 우리가 달력을 만드느라 밤을 꼬박 새우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를 기억해 재난이 닥칠 때 피하시라는 겁니다.”

하루는 제가 진상 자료를 한 청년에게 주려 했는데 그는 파출소 사람 같았고 건달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뵈며 쳐다보기에 저도 그를 쳐다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가장 바르다. 너의 배후에 있는 모든 사악한 요소를 제거한다.’ 몇 분간 우리는 대치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새해 달력입니다.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가 있습니다.” 그가 저를 보더니 “피식” 웃으며 받아 갔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그 배후의 좋지 않은 물질을 해체해주셨음을 압니다.

우리는 장터나 마을에 가서 진상을 알립니다. 저는 말합니다. “이 자료는 다 보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앞집 사람에게도 보여주시고 절대 태우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대법 사부님께서 사람을 구하러 오셨고 우리도 여러분을 구하러 왔습니다.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를 믿으면 구원받고 장래에 남게 됩니다. 대법제자를 박해하면 장래에 도태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인정했습니다.

제가 파룬따파를 수련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사부님께서 제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병마에 시달리던 시골 아낙이, 멀리까지 이름난 대법제자가 됐으니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럽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도 대법 책을 든 사람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우리집도 가난에서 벗어나 집도 있고 차도 있으며 가정이 화목합니다. 제자는 더욱 정진하여 처음과 같이 수련하고 사명을 완수하여 사부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사부님께 절을 올립니다! 수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진상 알리기를 첫째로 농자 놀랄 일은 있었으나 위험은 없었다

글/ 중국 대법제자(수련생 정리)

[명혜망]

자비로우시고 위대하신 사존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촌 사람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했으며, 올해 62살입니다. 1996년에 법을 얻어 수련을 시작해 대법(大法)을 수련한 지 29년이 되었습니다. 매번 법회 때마다 저도 교류글을 쓰고 싶었지만, 매번 써도 안 될 것 같아 몇 번이고 쓰다가 다 완성하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이번에 저는 제22회 중국 대법제자 법회 교류 통지문을 보았을 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글자 몇 자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이지만, 사부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금은 대법의 모든 서적을 볼 수 있고, 명혜망(明慧網)에 접속해 수련생들의 교류글을 읽고 글을 다운로드하며 소책자 등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제 손으로 직접 교류글 한 편을 써서 자비로우시고 위대하신 사존께 답안지 한 부를 바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부님께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청했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제가 교류글을 쓰고자 하는 이 마음을 보시고 또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지해주셨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쓰기 시작했고, 쓸 줄 모르는 글자는 쉬운 글자로 대신했습니다.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몰랐지만,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매우 순조롭게 써냈고, 저는 너무 기뻐서 ‘이 호미 잡던 손으로도 글을 쓸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쁨 속에서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원고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명혜망에 보내야 하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저를 다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수련생이 이 상황을 알고 제가 쓴 글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비록 문장이 잘 정리되지 않았고 오자도 많지만, 글 속에서 사부님과 대법을 믿는 확고한 신념과 대법 수련을 통해 닦아낸 선량함을 보았습니다.” 수련생은 주저 없이 제가 원고를 정리하고 명혜망에 보내는 것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의 큰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했습니다. 자비롭게 고통에서 구원해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련생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에 저의 수련 경험을 써서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수련의 층차(層次)가 한계가 있으니, 대법 표준에 맞지 않는 곳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의 자비로운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좋은 선택

2000년, 저는 농촌 고향에서 도시로 왔습니다. 저희 고향은 땅이 적어 일 년 수입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도시에 와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 않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폐품을 주워 생활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저희 집 살림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보여 도저히 살 수 없는 날들 같았지만, 저는 매일 즐겁고 웃으며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행운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사부님과 대법이 있으니 저는 한없이 행복하고 기뻐했습니다! 저는 대법 속에서 사람답게 사는 도리를 깨달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함도 아니고, 더군다나 높은 관직에 오르거나 큰 부자가 돼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함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부님

의 정법을 돕고, 중생을 구하며, 수련 원만(圓滿)해 반본귀진(返本歸眞, 진정한 자신의 본원으로 돌아감)하는 것입니다.

법을 실증하고 진상을 알려 중생을 구할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친척과 친구가 식당이나 파출부 같은 일자리를 찾아주었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저의 수련과 사람을 구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폐품 줍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이 일은 겉보기에는 더럽고 힘들고 하찮아 보이지만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었습니다. 자본이 들지 않았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골목골목 폐품을 주우러 다닐 때 진상 자료, 소책자, 현수막을 걸거나 대면해서 진상을 알리는 등 대법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에 매우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진상 알리는 일을 첫째로 두다

제가 이 도시에 처음 왔을 때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수련생과도 접촉할 수 없어 마음이 매우 급했습니다! 저는 고향에 가서 자료를 가져와 배포했습니다. 나중에는 사부님의 안배로 객차 운전기사 수련생을 알게 돼 왕복으로 자료를 가져올 수 있게 됐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저는 온종일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법을 실증하고 사람을 구하는 일만 생각했습니다. 폐품을 얼마나 줍는지, 돈을 벌 수 있는지 없는지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직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는 일을 첫째로 두었습니다. 주머니에는 항상 진상 자료 소책자를 넣고 다녔으며, 가는 곳마다 배포했습니다. 인연 있는 사람을 보면 곧바로 진상을 알려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사부님과 대법이 있으니 두려움을 몰랐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폐품을 주우면서 얼마나 많은 진상 자료를 배포하고 얼마나 많

은 사람을 구했는지 모두 기억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부님께서 저를 위해 깔아놓으신 길이며, 저는 단지 그것을 실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엇 하러 왔는지 잊어버린 경찰

2003년 가을, 어느 날 아침 두 사람이 저희 집 문을 두드리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라고 묻자 그들은 파출소 사람이라고 하면서 한 명이 “누군가 당신 집에서 파룬궁을 수련한다고 신고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침 탁자 위에 있던 담배 한 갑을 집어 그들에게 권하며 담배를 피우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고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두 경찰은 방 안을 둘러보더니 무엇을 하러 왔는지 잊어버린 듯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그냥 갔습니다.

남편은 당시 집에 있다가 이 광경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젠 끝났어, 경찰이 당신이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을 알았어. 우리 빨리 이사 가자.” 저는 말했습니다. “이사 갈 필요 없어요, 나는 그들의 교란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은 나에 대한 심성(心性)의 시험이에요. 걱정 마세요! 저에게는 사부님께서 돌봐주시고 계시니 괜찮을 거예요.”

우리는 이사하지 않았습니다. 선달그믐날 밤, 한 무리 사람들이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심한 남편은 또다시 놀라서 떨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문을 열었고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젊은이가 와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라고 묻자 그는 “별일 없습니다. 당신들 집 사람들이 모두 좋아 보여서 제가 와서 대련(對聯, 대구로 된 좋은 글귀)을 드리는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는 기어이 주려고 했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받아들자 그는 돌아갔습니다.

방으로 돌아오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들이 또 무슨 일로 왔지? 또 무슨 속셈이 있는 건 아니겠지?” 저는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집은 사부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니 무엇이 두려워요? 그 사람이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 선물해 준 거잖아요.” 그들이 온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저는 수련인으로서 누구에게나 잘해야 하며, 이것 또한 사부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집에 법공부 장소를 만들다

2006년, 저는 현지 수련생들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수련생이 납치돼 박해를 받고 있었기에 그 악랄한 환경 속에서는 아무도 집에서 법공부 장소를 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한 수련생이 저에게 “저희가 당신 집에서 법을 배우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7~8명의 수련생이 저희 집에 법공부 장소를 세웠습니다. 나중에는 저희 집으로 법을 배우러 오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 20명이 넘었습니다. 나중에는 저희 집에서 또 한 송이 ‘작은 꽃’(진상 자료점)을 피웠습니다. 우리는 매일 불은(佛恩)의 광대함 속에서 흠뻑 젖어 지냈습니다.

2007년, 한 수련생이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진상을 모르는 사람에게 신고돼 경찰에 납치됐고 집이 수색당했으며, 수련생은 압력을 못 이겨 사악에 협조해 경찰을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당시 마침 집에 없었습니다. 제가 돌아오자 가족들이 말했습니다. “경찰이 또 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마음이 매우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배후의 마에게 조종당한 것이니 그것은 마가 한 말이에요. 저는 사부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청하니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다시는 오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멸(滅)한다!’

나중에 그들은 일정 기간마다 저희 집에 왔지만 매번 올 때마다 저는 집에 없었습니다. 경찰이 여러 차례 저희 집에 왔지만 저를 보지 못하자 초조해졌습니다. 2008년 3월 어느 날 저녁 7시경, 경찰은 저희 집의 비수련인(수련하지 않는 사람)들, 즉 남편, 딸, 사위, 아들 등을 모두 파출소로 납치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안전을 위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파출소에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서둘러 대법 서적과 자료를 가방에 담아 숨겨 경찰이 대법에 죄를 짓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수련생 집으로 가서 수련생에게 “우리 가족들이 모두 경찰에게 붙잡혀 파출소로 갔으니, 우리 함께 정념(正念)을 발해 가족들을 구출하고, 경찰이 즉시 가족들을 석방하도록 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평온하게 앉아 강력한 정념을 발하는 동시에 사부님께 가지해주시기를 청했습니다. 다음 날 11시가 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친척 집으로 가서 알아보니 가족들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겁에 질려 저를 만날 엄두도 못 냈고, 경찰의 미행을 두려워해 집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모두 택시를 타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어디로 도망가요? 모두 빨리 돌아오세요.” 경찰의 끊임없는 소란 때문에 나중에 저희는 다시 이사를 했습니다.

사악이 보지 못하다

새집으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련생이 또 저를 찾아와 저희 집에서 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두말없이 “오세요”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좋았습니다. 2년 동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2015년 어느 날, 한 수련생이 저희 집에서 법을 배운 후 진상 자

료와 스티커를 가지고 나갔고, 걸어가면서 자료를 배포하고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오전 10시경, 수련생은 경찰에게 납치돼 파출소로 끌려갔고, 경찰을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저와 남편은 모두 집에 없었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저와 남편이 삼륜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가 마침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좁은 골목길이었는데, 남편이 “큰일 났다, 마주쳤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사부님의 보호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사부님, 제자를 구원해 주세요! 제자가 난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강력한 정념을 받았습니다. ‘사악이 나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대법제자에게 죄를 짓지 못하게 하라.’ 동시에 사부님께 보호막을 씌워주시길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렇게 경찰들은 저희 삼륜차의 양쪽으로 걸어 지나갔고, 정말로 저희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부님께서 또 다시 제자를 보호해주셨습니다. 사존께 감사드립니다!

또 한번은 경찰이 저희 집 문을 두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듣기에 많은 사람이 온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은 1층인데 문이 세 개였습니다. 앞뒤로 복도 문이 있고 거실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을 매우 시끄럽고 급하게 두드렸는데 남편은 매우 놀라서 온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문을 열라고 하고 저는 침실로 가서 정념을 받았습니다. 침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딸이 문을 열자 네 명이 안으로 들어왔고, 밖의 앞뒤 문에는 모두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부님께 제자를 빨리 구원해주시고, 경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빨리 돌아가게 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마치 순한 어린 양처럼 방에 서서 잠시 둘러보더니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놀랄 일은 있었으나 위험은 없는 일들이 저희 집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났기에 여기서는 몇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 제자는 사부

님께서 저에게 신의 지혜와 보호를 주셨기에 제가 사부님께서 정법하는 길을 도우며 오늘날까지 흔들림 없이 걸어올 수 있었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자비롭게 제도해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맺음말

29년간의 수련 속에서 저는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제자가 정념이 족하면 사부는 회천력(回天力)이 있노라”(홍음2-사도은)를 진정으로 체득했습니다. 또한 “당신들로 말하면, 대법제자라, 최후로 갈수록 마땅히 자신의 길을 잘 걸어야 하며, 시간을 다그쳐 자신을 잘 수련해야 한다”, “반드시 법 공부를 잘해야 하며, 그것은 당신들이 귀위(歸位)하는 근본적인 보장이다”(대법제자는 반드시 법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사부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제자는 사존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시간이 많지 않은 마지막 수련 속에서 법을 많이 배우고 잘 배우며, 대법에 동화되어 중생을 많이 구하여 사존의 자비로운 제도에 보답하겠습니다.

사존께 절을 올립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283명

■ 삼퇴 인원수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5473만 9169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